



이달의 표지 주인공



최효원 양(한산초 1학년)
최진호 부장(현대중공업 발전공사지원부)의 자녀

“아빠가 만든 로봇 타고 바다여행 갈래요!”

최진호 부장의 늦둥이 딸인 효원 양(8세)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귀여운 막내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효원양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효원 양 덕분에 최진호 부장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표지에는 '아빠 회사에서 만든 로봇을 타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효원 양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효원 양이 '버블'이라고 이름 지어준 사뵈간 로봇이 바다의 파란색과 대비돼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네요. 가족들에게 듬뿍 받은 넘치는 사랑을 더 큰 사랑과 기쁨으로 돌려주는 아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 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4

Contents



04

기획 사업분리로 재도약 나선다!

- 04 사업분리, 새로운 시작
- 06 대표이사 인사말
- 10 이렇게 뛰겠습니다!
- 12 한 눈에 보는 발자취

기획 봄이 오는 걸음

- 14 경주 벚꽃 나들이
- 16 미니화단 가꾸기



18



28



32



48



50

사람 · 일

- 18 현장을 가다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기계팀
- 22 우리 부서 미나사보
현대삼호중공업 의장1부
- 24 안전한 일터
가상현실 안전교육
- 26 이달의 도전
하루에 칭찬 10번하기/전지훈 과장
- 28 소개합니다
현대예술관 볼링장 새단장
- 30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송지애 대리가 신원섭 과장에게
- 32 그룹사 탐방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 34 든든한 파트너 금화주강산기(주)
- 36 세계를 만나다 ④ 싱가포르
- 38 직장인 생활백서 대화의 기술
- 40 그때 그 시절
1977 · 1987 · 1997 · 2007년 4월

지역 · 삶

- 42 좋은 사람들
동울산우체국 365봉사단
자세사랑회
- 44 울산 지역 소식
성남동 '감성창고'
- 45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드론(Drone)
- 46 자녀와 함께
김해 '목재문화체험장'
- 48 이달의 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 50 가볼만한 곳
영덕 '블루로드'
- 52 사랑을 나누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박유란 씨
- 54 건강칼럼 스트레스와 면역력
- 56 나를 만나는 시간
자신감 장착법

보람의 일터

- 58 회사 주요 소식
- 62 그룹사 소식
- 64 문화 포커스
최현우 매직 콘서트 'ASK?&answer!'
'크리스 노먼' 내한공연
- 66 축구단 소식
- 68 트렌드 따라 잡기
뉴노멀 중년
- 69 사우 자녀 그림 공모전
- 70 현중 가족 글마당
-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 83 이달의 명화



독자경영으로 재도약의 날개 단다!

현대중공업이 사업분리를 통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현대중공업은 4월 1일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중공업과 전기전자 사업의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건설장비 사업의 현대건설기계, 로봇 사업의 현대로보틱스로 분리 출범하여 독자적인 경영을 시작했다.

사업분리는 각 사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중공업

**안정적
재무구조 바탕으로
세계 1위 입지 굳건히**

현대중공업은 사업분리를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주산업인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분리되는 회사들에 일부 차입금을 나누어 배정하면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조3천억원이었던 차입금이 3조9천억원으로 3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10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면서 현대중공업은 조선 불황이 지속되더라도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십과 같은 ICT융합 선박과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엔진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선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다.

▲ 현대일렉트릭 & 에너지시스템

**R&D 투자 늘리고
해외 영업 강화**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은 독립법인 출범과 함께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던 상황에서 탈피해 연구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전자 산업은 제품 수명이 짧은 특성상 지속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산업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하는데, 사업분리 전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2%대로 경쟁사들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은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R&D 투자를 사업분리 전의 약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연구인력 역시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선박 송배전, 전력기 기술솔루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생산, 소비, 운영에 ICT를 활용해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또한 신규 메이저 고객들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 사업 파트너 발굴을 통한 현지화 기반을 구축해 해외 영업체제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에는 글로벌 매출 5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신제품 출시 현대건설기계 역시 장기 침체에 빠진 조선업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기계는 주요 기능이 울산에 편중되어 있어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했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법인 출범과 동시에 설계, 연구 등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영업력을 한층 높이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2%대 초반 수준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재고자산 축소 등을 통해 경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ICT를 접목해 장비의 위치, 작업시간, 부품교체 시기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이미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인 '하이메이트(Hi-Mate) 2.0'을 개발했으며, 본격적인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토탈케어(Total Care)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판매망을 강화함으로써 2021년까지 글로벌 매출 5조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 현대건설기계



신공장 타전 현대로보틱스는 독립법인 출범에 맞춰 대구 신공장으로 이전을 마쳤다.

로봇산업은 고령화와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으로 연평균 8% 이상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로봇 신공장은 공장 내의 각종 설비와 기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로 설계됐으며, 자동화 라인을 적용해 생산 규모도 기존의 두 배에 가까운 8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다품종의 표준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로봇 산업의 특성에 맞춰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강소기업형 관리체제도 구축했다.

현대로보틱스는 이미 해외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자동차 메이커와의 협력을 위해 현지 업체들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로보틱스는 국내외에서 투자를 적극 유치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사업을 확대해 전문 로봇기업으로 발돋움 해나갈 계획으로, 2021년 매출 5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출발! 미래 비전2021 선포



현대중공업 **강완구** 대표

현대중공업이 창립 45주년인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변화에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그린에너지와 글로벌서비스가 독립한 데 이어, 4월 1일 부로 전기전자와 건설장비, 로봇이 독립법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도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 전문기업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분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분리를 통해 주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7조3천억원이었던 차입금이 3조9천억원으로 47%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는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전략적인 핵심기술과 토탈 솔루션을 갖추고, 기존 시장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산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들은 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중공업은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Global Leader,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이라는 비전 아래 '2021년 매출액 20조원, 영업이익률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은 크게 △핵심사업 차별화 △신성장 동력 발굴 △근원적 역량 강화 등 세가지입니다.

우선, R&D 확대를 통해 핵심사업의 역량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조선과 엔진사업은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제품의 친환

경, 고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후발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사업은 FPSO 표준선 및 발전 바지선을 개발해 경제 회복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성능과 제품 전체의 혁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수소운반선, CNG선, CO2운반선, 극지운항 및 자원개발선 등 미래형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 사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엔진발전 민자사업, 연근해용 FLNG 건조 및 모듈러 LNG탱크사업을 추진해 먹거리를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의 안전문화 확립,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 확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작업장 구축,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근원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우리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 이후, 미포만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이뤄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오늘 우리는 조선해양 전문회사로 제 2의 창업에 나섭니다. 이번 비전 선포가 우리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찬 새 출발에 나서는 현대중공업과 임직원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희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중심 기업 도약으로 희망찬 미래 열어갈 것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주영걸** 대표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품질 제품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가 이달, 독립법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으로 첫 걸음을 뗏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의 규모는 연간 250조 원에 이르며, 산업 트렌드와 기술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칠고도 매력적인 '기회의 바다'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전자 전문기업이자 전력솔루션 일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품질과 기술, 창의력을 무기로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세계 전기전자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비전으로서 '2021년 매출 5조, 영업이익 5천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 중심 기업으로 변화하겠습니다.

해외 법인의 생산·영업 역량을 향상시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설계·생산체계 고도화, 품질 향상, 글로벌 부품 공급 체계 확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현 매출 대비 2% 수준인 R&D 투자를 2021년까지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유럽에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저압차단기 등 표준양산품은 수요가 안정적이며 수익률이

높은 분야로, 당사 매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기전자기기에 ICT 기술을 융합해 원격 유지 보수를 가능케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주력제품의 프리미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전략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일렉트릭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성장이 종업원 개개인의 고용 안정과 성취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새 출발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희망만큼이나 걱정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40여년간 축적해온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력, 전 세계 135개국 3천600개 고객사와 맺어온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대정신'을 함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대일렉트릭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현대일렉트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기계’ 원년, 새로운 도약!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대표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기계가 4월 1일부터 독립회사로서 새롭게 출범합니다. 건설장비 사업은 그간 수주산업 방식의 운영에 따라 많은 비효율이 발생해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7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하나갈 것입니다.

“품질 혁신과 영업력 강화의 해”

먼저, 가장 기본적인 품질과 영업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본원적 경쟁력인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품질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고객이 느끼는 수준과는 간극이 있습니다.

향후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품질 향상 활동을 통해 선진업체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메이커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외 딜러의 대형화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객들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딜러-고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고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개발, 구매 등 일부 기능을 성남으로 통합, 전진 배치하였으며, 울산공장은 생산 전문 공장으로서 품질과 원가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고객이 원하는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친(親)시장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생산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접목시켜 생산성 및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 와 있습니다. 신흥시장 위주

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전력투구 중인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시장 점유율이 8% 포인트 증가하며 2월까지 누계 3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출시한 명품 장비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분기 누계 글로벌 실적과 영업이익 또한 당초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현대건설기계”

최근 건설기계 사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기술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 기술을 접목해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개발한 통신 시스템인 하이메이트(Hi-mate)로 쌓아온 빅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해 ICT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거듭나려 합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ICT연구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업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3년 Global Top 5’진입을 비전으로 삼고 현대건설기계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현대건설기계를 임직원, 고객, 사회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현대건설기계가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 개발 · 신시장 개척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



현대로보틱스 **윤중근** 대표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는 4월 1일부터 현대로보틱스(주)로 재탄생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사업부는 1984년 10월 로봇사업팀 발족을 시작으로 독자 모델 개발, 설비 증설, LCD용 로봇 개발 및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성장해 왔고, 2015년에는 연간 최대인 5천대의 생산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리 회사의 로봇사업이 정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고 로봇분야 'Global Top Tier'로 도약하기 위해 현대로보틱스(주)를 설립하여 대구 현풍지역에 연간 8천대 생산 규모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대구 공장은 컨베이어 라인 생산, ICT 기반의 생산운영시스템 등으로 로봇 조립에서 출하까지의 전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이며, 고객사들을 위한 최첨단 전 시설, 교육장 등을 구비해 글로벌 마케팅 역량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주)는 세계를 선도하는 로봇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계 개선과 원가 절감을 통한 주력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아래의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품과 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용접, 핸들링, 적치, LCD용 로봇 등 주요 제품군에 대해 2021년까지 약 40여종의 모델을 추가 개발해 주력시장인 자동차 및 LCD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도장로봇, OLED용 진공로봇, 협업로봇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여 OLED

산업, 물류산업 등의 시장에 진입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체제 구축 등으로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사별로 특화된 로봇생산시스템을 고객사와 함께 개발·적용하는 로봇시스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내 여러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영업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우량 기업들과 합작 생산법인을 설립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품 개발에서 서비스까지 가능한 글로벌 생산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로봇사업은 지난 30여년간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2017년 4월의 독립법인 출범은 세계 속으로의 현대로보틱스(주) 비약이라는 목표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현대로보틱스(주) 임직원은 현대정신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가족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우리가 만듭니다!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들의 사수들 역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한창이다.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 위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 사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고품질 제품으로 인지도 향상에 기여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은 조선업의 이미지가 강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압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들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분리가 저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홍보는 영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품 생산을 책임지는 현장의 사수들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분리 후 더욱 훌륭한 제품으로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양권일 기원 47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변압기생산부



신제품 개발로 자체 경쟁력 확보할 것

선박용 동기 발전기를 비롯한 다양한 회전기 제품들은 그동안 조선업에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부가 제품인 방폭형 전동기 등을 생산하며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사업분리 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불량률을 줄이고, 팀원, 동료들과 소통하며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수현 기원 49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회전기생산부



엔지니어링 기술력 높여 맞춤형 제품 설계

국내외 업체의 경쟁이 치열한 배전반 시장은 맞춤형 제품 설계로 고객 만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배전반 설계 분야에서 쌓은 기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제품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스마트 배전반’ 등 미래 제품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성길 부장 47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배전반설계부



한류의 중심 ‘현대건설기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영업망을 확대해 ‘건설기계 한류’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일본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저가 공세로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과 맞서기 위해 저렴하고 심플한 ‘경제형 지게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영업의 최전선에서 힘차게 달려갈 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김민형 사수 27세, 현대건설기계 산업차량영업부



설계-생산 협업체계 강화

“생산 현장의 직원들을 고객처럼 대하라.”

신입사원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생산 현장의 피드백들이 설계 기술력을 높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산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설계 기술력을 더욱 끌어올려, 현대건설기계의 힘찬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더 많은 곳에서 '현대'가 새겨진 건설장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정수 대리 36세, 현대건설기계 설계부



자기계발로 변화 선도

저는 14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생산 지원으로 업무가 바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지금은 배움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건설기계의 앞날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 자기계발에 노력을 쏟아 새로운 변화와 맞설 것입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발전할 저의 모습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김창규 사우
33세, 현대건설기계 건설장비가공부



개선과 발전에 힘쓸 것

현대로보틱스는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대구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습니다. 신공장은 자동화 설비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CT) 등이 적용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산 능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발전은 시설이 좋아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주인 의식을 갖고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며 최고의 자리에 더욱 가까이 가겠습니다.

권기인 사우
40세, 현대로보틱스 로봇생산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앞장

저는 스마트 제조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로봇기업들은 전통적 제조공장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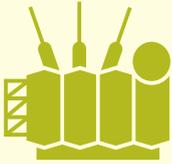
지난 2년간 로봇사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사명으로 삼아 지능화된 로봇시스템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정용현 부장
51세, 현대로보틱스 클린용로봇기술팀

재도약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과 현대건설기계(주), 현대로보틱스(주)는 지난 40여년간 현대중공업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독립법인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이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어떤 도전과 기록을 만들어 갈지, 이들이 펼칠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 본다.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



- 1977.02 현대중공업(주) 중전기사업
본부 발족
- 1978.01 배전반 공장 준공(3,630평)
- 1978.10 변압기 공장 준공(8,000평)
- 1978.11 현대중전기(주)로 독립
- 1979.08 회전기 공장 준공(5,541평)
- 1979.09 154kV 초고압 시험실 준공
- 1982.12 기술연구소 설립
- 1983.12 차단기 공장 준공(2,747평)
- 1986.11 5천만불 수출탑 수상
- 1989.05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공장 준공(2,160평)
- 1992.06 국내 최초 초고압차단기 국산화 실현
- 1994.01 현대중공업(주)으로 합병
- 1997.07 불가리아 국영 엘프롬트라포사 인수
- 1999.11 765kV 극초고압 공장 및 시험설비 준공



1970

1980

1990

현대건설기계(주)



- 1985.02 중기계사업부 건설중장비개발실 발족
- 1987.02 '중장비사업부'로 명칭 변경
- 1987.12 건설중장비개발 연구실 개설
- 1988.07 중형 굴삭기 자체 고유모델 개발판매
- 1989.09 현대중장비산업(주)로 독립
- 1990.01 휠로더 자체 개발 및 유럽 수출 시작
- 1993.12 현대중공업(주)으로 합병
- 1996.04 중국 합작 굴삭기 공장 준공으로 중국시장 진출



1980

1990

현대로보틱스(주)



- 1984.10 용접기술연구소 내 로봇사업팀 구성
- 1986.05 로봇조립공장 가동
- 1987.04 산업용 로봇 생산 개시
- 1987.10 연간 300대 규모 로봇공장 준공
- 1988.07 로봇-유압부문 '현대로보트산업(주)'으로 독립
- 1993.09 현대중공업(주)으로 합병
- 1994.10 대형5축 직교 로봇 개발(장영실상 수상)
- 1995.09 '6축 다관절로봇' 산업기술 혁신상 수상
- 1995.11 산업용 로봇 독자 모델 2종 개발



1980

1990



- 2000.06 765kV 극초고압 변압기 국내 최초 상업 운전
- 2001.01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 2001.06 800kV GIS 개발 성공
- 2003.10 중국 강소현대남자전기유한공사 설립
- 2004.05 '선박용 동기발전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06.07 '대용량 전력용변압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07.04 현대아이디얼전기 설립(미국 아이디얼사 인수)
- 2008.07 550kV급 GIS 공장 준공
- 2008.11 400kV 변압기 공장 준공
- 2009.08 올해의 송전설비 기업에 선정
(프로스트 앤 설리번)



- 2011.11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공장 준공
- 2011.12 '방폭형전동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12.11 용인시 마북동 전기전자시험동 준공
- 2013.01 러시아 고압차단기공장 준공
- 2017.04 독립법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 출범

2000

2010



- 2000.03 국내 최단기간 건설장비 생산 5만대 달성
- 2001.01 '건설장비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 2003.05 '굴삭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06.07 건설장비 '중국 10대 브랜드'에 선정 (굴삭기, 지게차 부문)
- 2008.05 중국 상주현대 유압기기 공장 준공
- 2008.11 인도 푸네 공장설립으로 업계 최초 인도시장 진출
- 2009.11 굴삭기, 국제 산업디자인상 수상



- 2010.10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 2011.11 중국 태안 휠로더공장 준공
- 2012.12 디젤엔진식 대형지게차,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13.04 3천대 생산규모 브라질공장 준공
- 2015.05 생산 누계 50만대 달성
- 2017.03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
'하이메이트(Hi-Mate) 2.0' 출시
- 2017.04 독립법인 현대건설기계(주) 출범

2000

2010



- 2000.09 '6축 다관절로봇' 한국 밀레니엄 상품에 선정
- 2007.12 8세대 LCD운반용 로봇 개발,
로봇협조제어시스템 개발 (장영실상 수상)
- 2008.01 산업용 로봇 세계일류 상품 선정
- 2008.12 '산업용 로봇제어기' 국제 산업디자인상 수상
- 2009.07 프레스 자동화라인용 로봇 국산화



- 2010.12 대한민국 로봇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1.12 'LCD로봇'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15.02 10.5세대 LCD 운반로봇 개발
- 2015.12 연간 5천대 생산
- 2016.12 도장 로봇 및 진공용 로봇 개발
- 2017.03 연간 8천대 규모 대규 신공장 준공
- 2017.04 독립법인 현대로보틱스(주) 출범

2000

2010

꽃비 흩날리는 경주, 발 닿는 곳마다 벚꽃 명소

연분홍 빛 꽃 터널로 상춘객을 유혹하는 벚꽃이 전국의 산과 들, 도로변에 한창이다. 특히 이맘때 경주는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여 발 닿는 곳마다 벚꽃 명소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흐드러지게 핀 경주의 벚꽃 길을 거니는 것만큼 완벽한 봄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을 가슴 가득 안고 꽃비 속에서 포즈를 취하면, 한 컷 한 컷이 모두 인생사진이 될 것이다.

보문호수

보문호수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다. 보문호수 둘레의 산책길을 천천히 걸으며, 잔잔한 호수를 뺨뺨하게 둘러싸고 있는 벚꽃들을 감상해 보자. 오리배를 타고 보문호의 전경을 감상하는 것도 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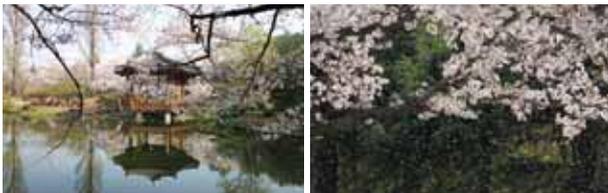
| 경주시 보문로 424-33 (신평동) |



보문정

보문호수 바로 옆에 위치한 보문정은 CNN이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장소' 11위로 선정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연못이다. 특히 정자와 벚꽃이 연못에 투영된 모습은 할말을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다.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지로 꼽히고 있으며, 야경도 일품이다.

| 경주시 보문로 424-33 (신평동) |



김유신 장군묘 주변도로

차량이 물리는 낮 시간보다는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길게 뻗은 벚꽃 터널을 여유롭게 산책하다 보면 어느새 지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밤에는 조명과 벚꽃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벚꽃이 피는 기간에는 길을 따라 야시장이 열려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 경주시 충효2길 44-7 |





- 경주 관광지**
- | | |
|-------------------|--------------|
| 01 정혜사지(3층석탑) | 08 석굴암 |
| 02 옥산서원 | 09 기림사 |
| 03 양동민속마을 | 10 토할산 자연휴양림 |
| 04 분황사 | 11 이건대 |
| 05 무열왕릉 | 12 감은사지 |
| 06 남산 | 13 감포항 |
| 07 민속공예촌 신라역사 과학관 | |

경주 벚꽃축제
기간 4월 9일까지
장소 동부사적지 및 보문관광지 일원

벚꽃길 색다르게 즐기

경주는 대릉원부터 첨성대, 계림, 교촌마을, 월성,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분황사까지 시내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이루어져 있어, 벚꽃 시즌 혼잡한 교통을 피해 자전거로 여행하기 좋다.

•자전거 벚꽃여행 추천 코스

분황사 ~ 황룡사지 ~ 동궁과 월지 ~ 반월성 ~ 경주국립박물관 ~ 월정교
 (자전거 대여소: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앞이나 보문단지 호수 차)

대릉원 돌담길

대릉원은 신라시대의 왕이나 왕비, 귀족 등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고분군이다. 대릉원 주변 도로에는 길게 늘어진 벚꽃나무와 돌담길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바람 따라 흩날리는 꽃비가 장관을 이룬다. 담장을 따라 쉬엄쉬엄 한 걸음씩 걸으며 신라 천 년의 향취를 느껴보자. 주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하게 벚꽃을 감상하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다.

| 경주시 황남동 |



반월성

시야가 확 트인 공간에서 봄을 느끼고 싶다면 반월성이 적격이다. 넓은 유채꽃밭 뒤로 하얀 팝콘처럼 피어난 벚꽃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첨성대, 석빙고, 계림, 동궁과 월지 등 다양한 볼거리도 가까이 있어, 돛자리만 챙기면 아이들과 함께 봄소풍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경주시 문천길 47 (인왕동) |



불국사 왕벚꽃

불국사 주차장에서 내려 불국사 입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벚꽃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잎이 크고, 진분홍색으로 왕벚꽃 또는 겹벚꽃으로 불린다.

왕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늦게 피기 때문에, 만개한 벚꽃을 즐기 못 한 사람들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경주시 불국로 385 |



집안 가득 싱그러운 봄을 들이자!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이겨낸 마른 가지에 동그란 새싹이 움튼다. 식물들도 제각기 봄맞이가 한창이다. 집 앞 베란다 너머 나무 가지들에 봄이 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안으로 봄을 데려 오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화분 몇 가지를 들이면 훌륭한 봄맞이를 할 수 있다. 화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쁘지만, 하나 둘 모아 예쁜 화단을 만들면 집안 분위기를 더 화사하게 바꿀 수 있다.

'배수판→부직포→자갈→흙' 순으로 채워

실내정원은 눈으로 보는 것도 즐겁지만, 심신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탁월한 봄맞이 방법이다.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용이한 베란다가 식물을 키우기 알맞다. 베란다가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과상자 크기 정도의 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벽돌이나 통나무 등으로 크기를 정한 다음에는 배수구가 막히지 않게 배수판을 깔아야 한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물이 썩어 식물이 죽거나 벌레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배수판을 깔고난 뒤에는 부직포, 작은 자갈, 흙 순서대로 화단을 채워나간다.

이 때 흙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오염되지 않고,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인공토양을 구매해 끼는 것이 좋다. 커피 전문

공간별 추천 식물



거실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실은 습도 조절 기능이 뛰어난 아자나무류와 유기화학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공기 정화 식물을 함께 배치하면 좋다.

추천 식물

인도고무나무, 산호수, 아레카야자, 피닉스야자, 대나무야자, 보스톤고사리 등



베란다

미세먼지나 분진 제거에 효과가 좋은 식물 배치한다. 집안 중 가장 일조량이 풍부한 곳인 만큼 해를 좋아하는 식물 위주로 배치해 보자.

추천 식물

팔손이 나무, 꽃베고니아, 허브류 등



점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커피 찌꺼기를 가져다가 일반 흙과 섞어 사용해도 무방하다.

초보자라면 이동식 정원을 추천한다. 나뭇결이 살아 있는 과일 상자나 와인 상자, 창고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용기나 양은그릇은 훌륭한 이동식 화단이 된다.

화단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 배수를 위해 그릇 바닥에 물이 빠져나갈 구멍을 4~5개 뚫고, 배수판→부직포→작은자갈→흙 순으로 담는다. 겉면은 페인트칠을 하거나 시트지, 포장지로 장식하면 근사한 화분이 된다.

생육환경 비슷한 식물끼리 배치해야

식물은 잎이 넓고 생명력이 있는 관엽식물이 가장 기르기 쉽다. 화초류는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2~3개월이면 말라 버려 금방 미관을 해친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물만 줘도 쉽게 자라는 상추, 방울

토마토 등의 채소를 심으면 훌륭한 자연학습장이 되고, 상추나 허브처럼 재배 후 함께 먹을 수 있는 품종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단에 꽃이나 식물을 심을 때는 색깔과 크기 등을 고려해 바깥쪽과 좌우에는 키가 큰 식물을 심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차 작은 식물들을 심는 것이 좋다.

또한 물주기 횟수나, 일조량 등 생육환경이 비슷한 식물들끼리 모아서 배치하면 관리하기가 더욱 편하다.

베란다나 거실뿐 아니라 욕실 등에 화분을 놓아도 산뜻한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으니 도전해 보자. 욕실에는 흙 대신 물에 뿌리를 넣어 재배하는 수경식물을 추천한다. 무스카리, 크로커스와 같은 구근(球根)식물이나 물옥잠과 같은 침수식물 등이 적당하다.

최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주 방

가스를 사용으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주방에는 탄소동화작용이 뛰어난 식물과 음식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을 추천한다.

추천 식물
스킨답서스, 산호수, 보스톤 고사리 등



침 실

밤 시간에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침실에 두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추천 식물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등



공부방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식물이나, 허브류를 배치하면 머리를 맑게 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에도 좋다.

추천 식물
산세베리아, 로즈마리 등



현관 및 신발장

오염된 공기나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배치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 물질과 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추천 식물
벤자민 고무나무, 인도 고무나무, 스파티 필름 등

선박의 가슴에 심장을 넣다

흔히 선박의 엔진은 사람의 심장에 비유되곤 한다. 실제로 기관실(Engine Room)에 들어가 보면 메인 엔진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보조 장비와 배관들이 마치 혈관처럼 느껴져 커다란 생명체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조선소의 외과의사, 기계팀

36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기계1팀은 엔진을 비롯해 기관실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의 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선박에 엔진을 설치하는 일이란 선박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이다. 그래서 기계1팀원들은 마치 외과의사가 심장 수술을 하듯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작업에 임한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은 무게 230여톤에, 6~7개의 실린더로 이뤄져 있으며, 약 1만2천500마력 이상의 힘을 낸다.





하지만 PCTC나 RO-RO선의 경우 차와 화물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선체가 넓은 편이라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최대 9개의 실린더를 가진 엔진이 설치되기도 한다.

선박의 엔진은 메인엔진, 회전축(Shaft), 프로펠러(Propeller), 방향키(Rudder) 등의 주기관과 각종 펌프류, 전기장비 등의 보조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메인엔진의 운동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프로펠러에 모두 전달되려면, 선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에너지의 전달 축이 완벽히 일직선을 이뤄야 한다. 이는 선박 운항 시 에너지의 효율에서부터 진동 상태, 시스템의 내구성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작업이다.





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

엔진이 탑재되기 전까지 이뤄져야 할 작업들은 수없이 많다.

먼저 장비들이 설치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엔진이 놓일 시트를 제작해야 한다. 보통 탑재 전 10여일간은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엔진을 탑재한다. 엔진을 탑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4일 정도다.

특히 실린더 규모가 큰 엔진의 경우 분할돼 입고되기 때문에 조립 후 탑재까지 최대 3~4일이 걸린다고 한다.

엔진 등 주요 장비들이 선체 블록 위로 내려지면 미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진다. 다이얼게이지(Dial Gauge) 등 정밀 계측장비를 이용해 0.01mm의 오차 내에서 각종 기기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동력 전달 축의 부하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철재는 외부 온도에 의해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0.01mm 오차를 잡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0.1mm 이라고 하니, 0.01mm까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들의 정교함과 기술력은 두말하

면 잔소리다.

“1mm까지는 손끝으로 맞출 정도”라며 말하는 한 팀원의 말에 웬지 모르게 수공이 간다.

평균 근속 20년 넘는 베테랑

기계팀은 막내인 엄혜성(24세) 사우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반조장들은 과거 현대미포조선이 수리조선소로 운영됐을 때부터 기술력을 키워온 베테랑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분할된 엔진을 탑재할 때는 엔진전문 엔지니어가 와서 조립을 도와준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기계팀의 경우, 과거 선박을 수리할 때 수없이 많은 엔진을 분해하고 작업한 경험이 있어, 모든 작업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계팀원들은 시운전 항해에도 동행한다. 시운전 중 엔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팀장(54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엔진을 블록 위에 놓고 볼트, 너트만 조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또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노력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 아쉽다”며, “모두가 팀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작은 바람을 밝혔다.

전 세계 오대양을 누비게 될 선박이 망망대해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선박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기계팀.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선박의 튼튼한 혈관, 우리가 연결해요!”

현대삼호중공업 의장부는 배의 다양한 의장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선박에 생명을 불어넣는 부서다. 이들의 업무는 전기와 유류, 물 등 모든 신호가 선박의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정교한 작업이 필수다. 현대삼호중공업 의장부는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끈끈한 동료애로 업무 성과는 물론 안전까지 사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의장부를 소개합니다

의장부는 관철, 전장, 기술 세 파트가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파이프와 케이블을 설치, 관리 하며, 선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탄탄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



관철 파트(관철1, 2, 3과)

선박의 선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기관실, 탱크, 데크)의 장비에 파이프를 설치·점검하고, 선박 내부에 각종 통행장치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조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생산성 및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파트(전장1, 2과)

선박 내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배선·결선(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팀원들이 사무실과 현장에 신바람나는 긍정에너지를 불어 넣어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술 파트

관철과 전장 파트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구 및 소모형 자재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업무의 마지막 공정인 기관실 도장도 맡아 선박이 인도될 때까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목 이 사람!



김현호 사우(29세)는 작년 12월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도레미'부터 배우기 시작한 김현호 사우는 오로지 악보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루 종일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진다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악기 하나쯤 배워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 자랑거리

점검, 또 점검!

의장부는 그 동안 안벽에서 이뤄졌던 누수(Leak) 조치를 도크와 PE공정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확인하는 'Leak Free Day'에는 선박 내 전 시스템의 파이프 라인에 물을 주입해 파이프 연결 부가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누수가 생긴 곳에는 추가 볼트 조임 작업과 가스켓 교체 작업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이 꼼꼼한 점검으로 고품질 작업을 해내는 덕분에 도장이나 족장, 시운전 등 후속공정에 미치던 간섭을 크게 줄여 원활한 공정 흐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극복 다 함께

의장부는 '위기 극복과 팀워크 강화'를 위해 업무 Load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주중, 팀단위로 단체 월차를 쓰며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서내 10개 팀 중 7개 팀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팀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3월 15일 의장 1부 PE1팀 강진 가우도에서

‘가상’에서 ‘현실’을 배우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 있는 구름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적이 있다. 무심코 새어나온 ‘다행이다’라는 열은 탄식은 어른이 된 지금도 높은 곳을 오를 때 항상 조심하는 습관으로 변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아찔한 경험이 다행이도 현실이 아닌 가상의 상황이라면 그것은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된다. 현대중공업은 2월 28일 동종업계 최초로 가상의 사고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안전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시각청각은 물론 몸의 반동까지 생생히

1도크 동편과 해양 도장 1공장 앞에 위치한 안전체험교육장에는 각각 10대씩 총 20대의 VR 장비가 설치됐다. 안전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고글 모양의 VR 장비를 착용하면 실제 작업장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가상의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당신은 족장공으로 현장에서 오늘의 작업을 시작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다리를 타고 공사가 한창인 VLCC 탱커선 내부로 내려가며 체험은 시작된다. 모든 이동은 체험자의 시선에 따라 결정되며, 체험 도중 고개를 돌리면 작업 현장의 이곳저곳을 살펴 볼 수 있다. 시각적인 모습뿐 아니라 현장의 시끄러운 소음과 이동으로 인한 몸의 반동까지 구현해내며 현장감을 더했다.

체험자는 동선을 안내하는 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되며, ‘사다리에서는 3타점을 확인하세요’ 등 작업별 주의사항도 배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은 ‘떨어짐사고가 주된 주제이지만, ‘부딪힘’ 사고와 ‘넘어짐사고’ 등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체험자는 중대재해 발생 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를 통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아찔한 순간들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20미터 높이의 족장 위에서 바다에 널브러진 전선줄에 다리가 꼬여 발을 헛디디거나, 눈높이보다 낮은 곳을 지날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 머리를 부딪히는 등 방식으로 인한 아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다. 목적지에 다다른 체험자가 다급한 마음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된다.

안전사고 경각심 높일 ‘살아 있는 교육’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통해 경험한 사고 체험은 사소한 사고의 원인과 그것이 낳은 끔찍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분이 조금 넘는 짧은 체험 시간이지만, 반성의 여운은 그 어떤 교육보다 길게 남는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작업자가 재해자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체험에 참여한 김정규 사우(현대중공업 건조 1부)는 “생생한 현장감에 나도 모르게 교육에 집중하게 됐다”며,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적으로 사내 협력사와 사고율이 높은 부서의 사우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구현된 ‘추락’ 사고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화재’와 ‘끼임’ 등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안전교육이 안전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칭찬을 아끼지 않은 당신, 아주 칭찬해 ~

누구나 한 번쯤은 남에게 칭찬받고 기뻐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며,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소 '칭찬이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전지훈 과장(35세/현대삼호중공업 원가회계부).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하루에 칭찬 10번하기' 도전을 시작했다.



“정숙아, 너 저승사자 아니야~”

도전 첫 날, 칭찬 방법을 노트에 메모해가며 칭찬 전도사가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처음 마주친 이는 바로 부서 여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춘 여 후배를 보고 본능적으로 “위아래 신발까지 전부 블랙으로 맞췄네, 무슨 저승사자냐? 얼굴도 까맣게 칠하지 그래?”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루종일 기회를 노리며 칭찬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칭찬 10번을 채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도전이었는데, 막상 마음먹고 칭찬을 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DAY

적응기! 칭찬은 계속된다.

첫 날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평소 잘 하지 않았던 칭찬이 어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익숙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칭찬해 보자며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모닝커피를 함께 마신 입사 동기,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업무하며 대면한 타 부서원들에게도 칭찬을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무르익은 분위기에 자화자찬도 칭찬의 일종이라며 농담 삼아 동료들 앞에서 제 자신을 칭찬하다 불상사(?)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3DAY

온라인에서 칭찬하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계획 월차로 회사를 나가지 못해 칭찬할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칭찬 콘셉트를 카카오톡 및 SNS로 수정하여 10회 이상을 거뜬히 채웠습니다.
특히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도 오랜만에 연락해 안부와 칭찬을 교환했습니다. 평소 답지 않은 제 모습에 '너 무슨 공공이야?' '돈 필요해?'라는 대답을 듣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칭찬한거야! 오해는 접어둬!”



칭찬 포인트로 칭찬하기!

한 동안 잊고 있던 칭찬법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칭찬포인트' 제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알차게 사용해 보자는 생각에 10명의 동료들에게 포인트를 선물했습니다.

포인트를 받은 사우들도 "그 동안 이 좋은 제도를 잊고 있었다"며, 또 다른 사우들에게 칭찬포인트를 발송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칭찬 전도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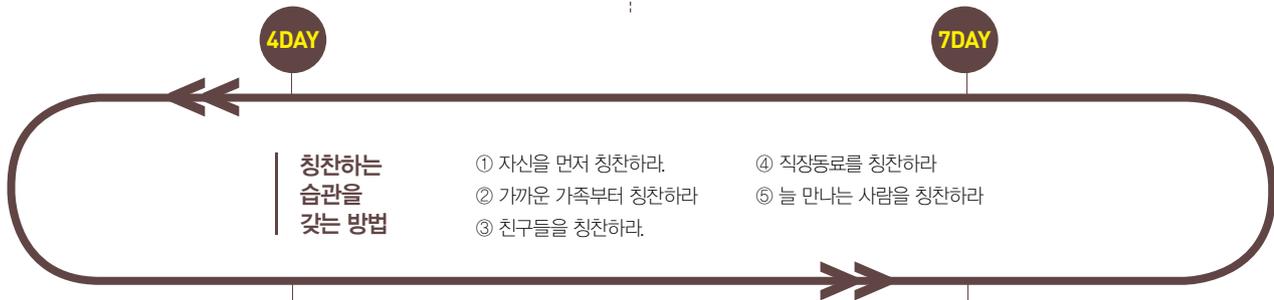
내 자신을 칭찬하기

봄기운이 가득한 일요일 오후, 커피를 한잔하며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칭찬은 진심어린 내용이었는지, 횡수 채우기에 급급하여 형식적이진 않았는지 등 반성하던 차에 문득 제 자신을 제대로 칭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칭찬 중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칭찬이며,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우 여러분 모두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 간단한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제안드려 봅니다.



4DAY

7DAY

5DAY

6DAY



“도전하길 참 잘했네!”

이날은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총무부 박현자 사원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칭찬을 건넸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전 첫 날엔 10번 채우기도 급급했지만 5일째가 되니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오는 제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또한 칭찬 받는 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도전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칭찬

회사에서 업무 도중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옆 동료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동료는 "요즘 왜 이렇게 칭찬로봇이 됐어?"라는 말과 함께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칭찬은 받는 이와 하는 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라이크의 ‘짜릿함’과 맥주의 ‘시원함’이 한 곳에!

현대예술관 볼링장에 맥주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가 생겼다. 달라진 분위기 때문인지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볼링의 부활에 발맞춘 변신

90년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한동안 그 열기가 가라앉았던 볼링이 생활스포츠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최근 락볼링장(볼링+클럽)이나 핀볼링장(볼링+카페) 등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춘 볼링장이 생겨나면서 볼링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만남과 소통의 도구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예술관 볼링장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볼링장 한 칸에 간단히 맥주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lounge)를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며 이용객들의 달라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나선 것이다.

현대예술관은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볼링을 즐길 수 있도록 볼링장 내 기존 휴게 공간(약 35평)을 리모델링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맥주와 커피 등을 판매하는 카운터와 총 14개의 테이블이 새롭게





새롭게 단장한 현대예술관 볼링장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자세히 소개합니다.



마련돼 이용객들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또한 어둠 속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번쩍이며 시끌벅적한 '락볼링'장과 달리, 현대예술관 볼링장은 다소 밝고 차분한 분위기로 조성됐다. 일반 볼링장보다는 약간 어두우면서도 카페 같은 아늑함과 활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젊어진 분위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내부 시설이 변화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층도 달라지고 있다.

현대예술관 볼링장 매니저인 문진성 대리는 "과거에는 상주하고 있던 동호회나 수강생 등 단체나 고정 고객이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동료나 친구, 가족, 연인 등 삼삼오오 게임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요즘 친구들과 이곳 볼링장을 자주 찾는다는 명준영 씨(32세, 동구 동부동)는 "볼링장 분위기가 산뜻하고 젊게 변하면서 친구들과 만날 때 이곳에서 모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가격도 저렴해 부담 없이 어울리기에 좋다"고 말했다.

현대예술관 볼링장은 게임 비용이 일반 볼링장보다 약 30% 정도

저렴하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라운지도 커피, 음료, 안주류 등을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다.

'볼링+맥주', 단합대회 장소로 각광

따뜻해진 날씨에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봄철 단합대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대예술관 볼링장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볼링은 경기 방법이 간단해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실내스포츠라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합대회 장소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행 후 회식으로 이어지는 판에 박힌 단합대회보다는 스포츠나 문화행사를 함께 즐기며 화합을 도모하려는 이들에게 이곳은 더 할 나위 없는 장소다.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공에 실어 던져버리고 싶다면, 오늘 일과 후 볼링핀이 부서지는 듯한 화끈하고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에 쌓인 체증을 확 날려 보자.



현대예술관 볼링장은?

규모 : 16개 레인(총 412평)

운영시간 : 10시~24시(주말/공휴일), 14시~24시(평일),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라운지 판매품 : 생(캔)맥주, 커피, 음료, 안주류 외

라운지 운영시간 : 저녁 5시 ~ 11시

요금 : 3천원/1인(1게임 기준), 볼링화 대여료 1천원

예약 및 문의 : 052-209-7872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평소 말하지 못했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작은 선물과 함께 배달하는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동료, 가족,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사우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배려에

행복으로 물들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미숙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 임신부의 경우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동료와 회사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크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송지에 대리(31세)는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덕에 누구보다 편히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신원섭 과장(36세)의 역할이 가장 컸다며 고마움을 전한다.



입사 때부터 늘 힘이 된 선배

“감사드릴 분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1년의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송지에 대리가 사보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수줍은 얼굴로 사보 편집실의 문을 두드렸다.

송 대리는 “신원섭 과장님은 항상 은은한 미소로 후배 사원들을 살뜰히 챙겨주세요”라며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송지에 대리와 신원섭 과장의 인연은 누구보다 각별하다.

2011년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로 첫 입사했을 당시 송지에 대리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햇병아리 사회초년생이었다.

낮선 사무실 분위기와 익숙지 않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수였던 신원섭 과장의 도움으로 회사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원섭 과장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진 것은 지난해였다. 송지에 대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자마자 현대삼호중공업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근로시간 개편, 통상임금 개편 등 부서 내에서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신원섭 과장은 곳곳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며 송 대리의 빈자리를 채웠다.

송지에 대리는 단 한 번의 불평없이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준 과장님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오히려 걱정하고 미안해 하는 송 대리에게 “괜찮다”며, 불편한 마음을 털어주었다.

“신원섭 과장님이 보여주신 배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방긋 웃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거기에 맛있는 간식과 함께라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두 손 가득 간식거리를 들고 신원섭 과장님을 찾아갔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송지에 대리는 신원섭 과장을 “업무에 대해 꼼꼼히 가르쳐주고,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봐주는 존재”라 말했다.

업무 특성상 자그마한 실수도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기에 더 조심스럽게 일해 온 송지에 대리, 직속선배인 신 과장은 항상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업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선배라고 한다.

“과장님,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육아휴직을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과장님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릴게요.”

송지에 대리의 말과 함께 시작된 깜짝 파티에 신원섭 과장은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내심 고맙고 대견스러운지 은은한 미소를 보였다.

“앞으로도 잘해 보자”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신원섭 과장의 모습에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하루, 송지에 대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사보를 통해 전할 수 있어 더 뜻 깊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직장의 행복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배려하는 신원섭 과장과 송지에 대리의 동료애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 모두가 즐겁고 화목한 일터를 만들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덕에
참 따뜻합니다

”



고효율·고출력 제품 확대로 태양광에도 별들 날 온다!

“미래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광에너지의 평균 생산 가격이 10년 안에 석탄 값보다 낮아져 가장 값싼 연료가 될 것.”
올해 초,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발표 내용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국제재생가능에너지국(IREA)의 말을 인용해 2025년이면
태양광 에너지 발전 단가가 2009년 대비 16%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도약

태양광 대중화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태양광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일찌감치 그린에너지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1997년부터 태양광 발전의 사업성 연구 등을 통해 그린에너지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후 2004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 전담팀을 구성,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는 사업에 본격 진출한지 1년 만인 2006년, 국내 최초로 6천만달러 규모의 자체 브랜드 태양광 발전설비를 스페인 태양광 발전단지에 수출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에는 울산의 모듈공장을 충북 음성군 소이공업단지 내



6만6천㎡(2만평) 부지로 확장 이전하고, 2008년에는 태양전지공장을 완공해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Solar Cell)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2년에는 태양광 R&D 센터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4년부터는 고효율 펄(PERL) 단결정 태양전지의 생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이하 '그린에너지')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



제품 차별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에 집중

태양광 산업은 국제 정치 및 에너지 정책, 국제 유가, 환경 규제 등 외부 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 그린에너지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조직과 인사체계를 재정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그린에너지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제품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설비를 대폭 증설한 중국 업체들이 제품의 공급 과잉을 주도하고 있어,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 만족도가 높은 고효율, 고출력의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힘쓰며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펄(PERL/Passivated Emitter & Rear Locally diffused) 생산 라인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해 고효율 제품의 생산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펄 타입 태양전지(PERL-type Solar Cell)는 후면에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薄膜)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이 1% 포인트 가량 높은 고효율 제품이다. 그린에너지는 지난해 말 기준 연간 300MW(메가와트) 규모의 펄타입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태양광 제품에는 기존의 3BB(Bus Bar, 전극)* 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4BB 셀이 장착돼 효율성과 모듈 당 출력량을 높였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차세대 태양전

지(공인효율 22%)를 개발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나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린에너지는 고품질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인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로부터 '최우수 등급(Tier-1) 태양광 모듈 업체'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며 고품질 모듈 생산 업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재도약 꿈꾼다

그린에너지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선, 해양 등 주력 사업에 밀려 투자에서 소외되고, 불필요한 간접비용도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임직원들은 타 사업본부의 사업 환경과 경영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새 조직의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정립하고, 연구개발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세상을 꿈꾸는 착한 마음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버스바(BB)

태양광 모듈 위를 지나가는 전선형태의 전극으로, 전기를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한다. 모듈 위에 버스바가 많다면 전기전달 효율이 높아지고, 전류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



세계 최대 '달 생산업체'로 이름 떨쳐

1985년 금화특수주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금화주강산기는 창업 6개월 만에 거래처의 어음부도와 사고로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손시학 대표(64세)의 독심 아래 견고한 소재와 다양한 형상의 주강품(스크랩을 녹인 뒤 거푸집에 부어 만든 제품)을 생산하며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30년 넘게 외길을 걸어왔다.

손 대표는 무리하게 사업군을 확장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타협없는 '절대 품질'로
선택 받는 기업으로 우뚝

경남 양산에 소재한 금화주강산기(대표 손시학)는 선박의 상징인 달(Anchor)을 비롯해 선수재와 선미재 등 각종 선박용 주강품(鑄鋼品)을 생산하는 회사로, 90여명의 임직원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용해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95년에는 제 2공장을 준공해 설비 및 생산능력을 크게 확충했으며,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국내 조선업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금화주강산기의 주 생산 품목은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닻과 벨 마우스(Bell Mouth · 닻을 격납하는 종 모양의 구조물), 방향타를 지지해주는 러더 혼(Rudder Horn) 등이다.

금화주강산기는 한 때 세계에서 닻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로 이름을 떨쳤다. 지금도 생산하는 전 제품을 국내 5대 조선사에 90% 이상 공급하며 선박용 주강품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그룹과의 인연은 1990년 현대중공업과의 첫 거래를 시작으로 약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9.7%(2016년 기준)에 달한다.

또한 손시학 대표는 올해 초부터 현대미포조선의 사외 협력회사 대표모임인 '현미회' 회장을 맡으며 모기업과 협력회사의 상생·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전 공정 품질보증 프로그램 구축

오늘날 금화주강산기가 업계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품질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없이 완벽을 기한다는 '절대 품질(Absolute Quality)'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화주강산기는 전 공정에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원자재 입고에서부터 생산 완료단계까지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며 '불량을 제로' 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의 테스트 및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련 부서로 전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화주강산기가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모형 제작에서부터 용해, 주입, 열처리, 후처리, 도장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생산공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한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다.

금화주강산기는 고품질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금화주강산기가 앞으로도 제품과 품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그룹과 신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금화주강산기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며
'불량을 제로' 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황홀한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

‘동남아 여행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싱가포르는 악명 높은 나라다. 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와 걸핏하면 마주치는 스콜(소나기), 언제라도 벌금을 매기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비밀경찰의 눈초리까지, 그 어느 하나 여행객들에게 친절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처럼 까칠하고 딱딱한 이미지 뒤로는 이국적인 풍경과 깨끗한 거리, 세련된 쇼핑 시설과 멋진 야경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현중그룹의 오랜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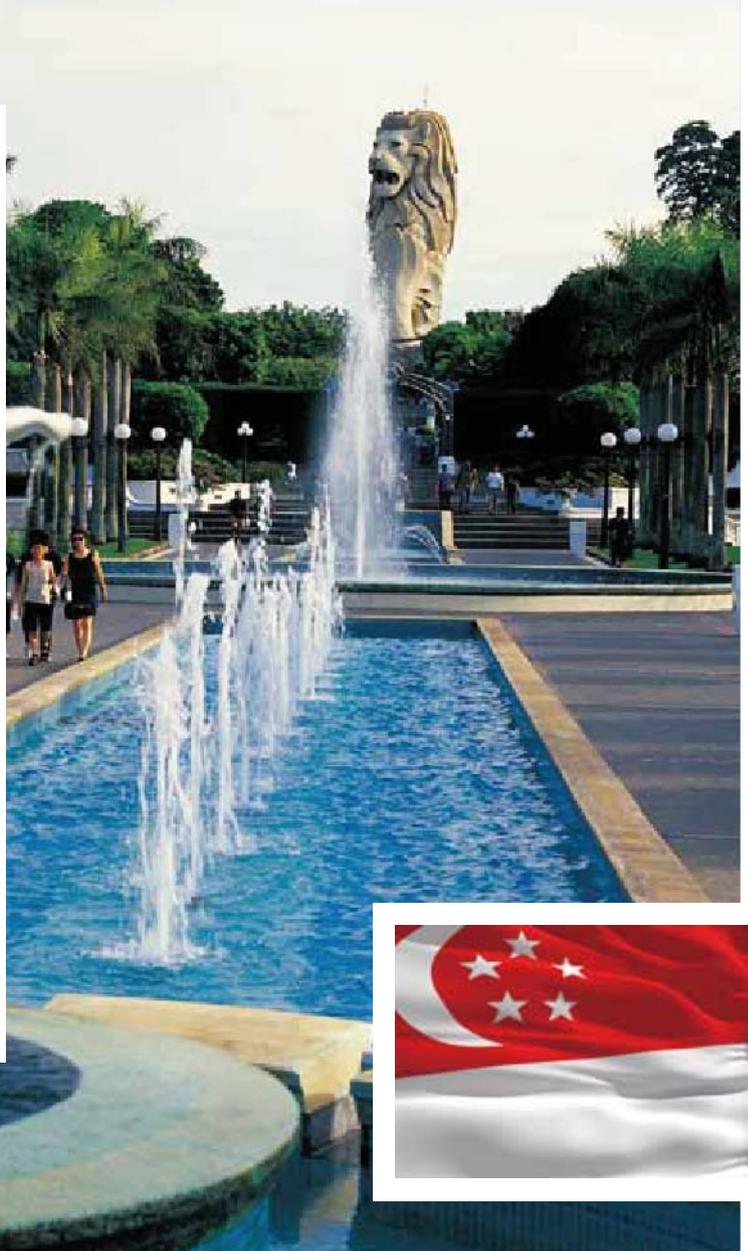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남쪽의 섬나라인 싱가포르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뒤를 잇는 조선강국이다.

특히 국가 핵심산업인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제작 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 그룹과 싱가포르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펼치는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넵툰 오리엔트 라인스(NOL/Neptune Orient Lines), 아시아틱 로이드(Asiatic Lloyd), 페트레덱(Petredex) 등 싱가포르 국적의 선사들은 지난 40여년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에 총 75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특히 2015년에는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해 아시아틱로이드사에 인도한 ‘UASC 움카스르(Umm Qasr)호를 ‘올해의 친환경 선박’으로 선정하며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9천TEU급 컨테이너선인 이 선박은 속도와 운항조건에 따라 연료 소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전자제어 방식의 메인 엔진을 장착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음과 진동 및 탄소배출량을 줄인 '고효율 에코십(eco-ship)'으로 평가 받았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

싱가포르의 상징은 '멀라이언(Merlion)'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옛 이름 '싱가푸르(사자의 언덕)'에서 따온 동물인 사자의 머리에 해양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인어의 다리를 합성한 상상의 동물이다. 신비한 멀라이언상은 싱가포르의 행운을 수호하며 도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멀라이언 공원에 설치된 높이 8.6미터, 무게 70톤에 달하는 동상이 가장 유명하다.

싱가포르의 진짜 매력은 정제된 도시 속에서 환상적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의 버드 파크(Bird Park)인 '주롱 새 공원'에서는 약 400종, 5천여 마리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그 사이를 걸으며 새들과 친구가 되는 경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16층 건물 높이의 수직 정원과 판타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슈퍼 트리로 유명한 식물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는 다양한 기후 식물을 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울타리 없는 동물원인 '싱가포르 동물원'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2천800여종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직접 교감할 수 있어 어린 자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싱가포르의 대표 휴양지 '센토사섬'에서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다양한 관광과 해양 스포츠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이라는 뜻으로 바쁜 도심에서 벗어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싱가포르에서 보내온 이야기



화려한 도시에 푸른 자연이 어우러진 나라, 싱가포르로의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대중공업 싱가포르지사에서 근무하는 오민성 차장(45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독특하다고 느낀 싱가포르만의 문화가 있나요?

싱가포르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의 가정에는 많은 입주자정부(Maid)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나라도 많지만, 싱가포르는 다르니다.

주말이면 싱가포르 사람들과 입주자정부들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와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경치를 즐기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외부인인 사람들을 배려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너그러움이 인상 깊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치국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에게는 두려운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흡연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려 2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태형(筍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매로 그 죄를 묻습니다.

어쩐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철저한 법치주의 덕분에 싱가포르가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들에게 싱가포르의 특별한 장소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싱가포르'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가 '마리나 베이(Marina Bay)' 지역의 관광지들입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Merlion)상, 마리나베이 이센즈 호텔의 무료 레이저쇼, 어디에서 봐도 아름다운 야경이 일품입니다.

또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인데요, 슈퍼트리로 유명한 이 식물원에서는 시원하게 내려오는 실내 폭포 더불어 다채롭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요리는 스리랑카 크랩에 칠리 소스를 얹은 '칠리 크랩'과 한국의 갈비탕과 유사한 '바꾸페', 싱가포르 식 전통 국수 '락사' 등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는 평균 1만8천개 이상이라고 한다.
무심코 사용한 단어도 입 밖으로 한 번 표출되면 어김없이 현실적인 힘을 갖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하고, 희망의 새싹이 되거나 재앙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동료와의 수다부터 회의,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경청’이 존중의 시작

1985년부터 25년간 미국의 대표 토크쇼인 ‘래리 킹 라이브’를 진행한 방송인 래리 킹(Larry King)은 세계가 인정하는 달변가다.

특히 게스트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독특한 인터뷰 스타일로 유명세를 탔는데, 래리는 한 인터뷰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등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통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이 반드시 ‘대화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뛰어난 화술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 상대방은 스스로없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청을 실천하길란 생각보다 어렵다. 상대가 두서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가로채지 않아야 하는데, 그 분야에 내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듣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가짐은 ‘상대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남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로 경청하면서 끝까지 들어 주는 사람은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잘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물을 볼 때도 정확하게 보고, 남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소통도 원활하고, 그만큼 신뢰도 높아진다.

상사와 부하직원 ‘역지사지’가 기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인격체를 가진 대등한 관계임을 인지하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조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상사와 부하직원이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사는 자신이 부하직원의 위치에 있었을 때 상사에게 원했던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는 회의다.



회의에 참가할 때는 보여주기식 발언을 자제하고 필요한 말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말이 길어지거나 ‘예’, ‘저와 같은 군소리’가 잦아지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말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결하고 명확한 발언은 회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는 것’도 중요한 대화 기술 중 하나다. 주변 정보부터 시작해 말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이다 보면 말이 늘어지고 핵심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리더의 말하기, 조직 경쟁력 좌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대화의 방법에 대해 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사의 무례함과 폭언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눌러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성과가 생각만큼 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만약 보고가 늦어지고 있다면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과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소통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지, 업무 지시는 명확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한 업무에 대해 야단을 칠 때는 대화의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전에도 똑같았다”는 식으로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는 것은 직장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기 십상이다.

대화를 잘 하는 것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창출하는 밑바탕이 된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화자(話者)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자. 대화의 기술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참고 서적 대화의 신(래리 킹 著)

“회사와 위기극복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던 시절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4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4



▲ 현대중공업 노사 공동선언 선포식



▲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 식당 및 강의동 준공



▲ 2007년 4월에 열린 현대삼호중공업 사내기능경기대회

2007년 4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그해 3월 사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영철학 노사 공동선언 선포식’에 대한 소식이 실렸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35주년, 노동조합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지속 성장 △투명 경영 △안전 및 환경친화 경영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문화 구축 △글로벌 기업 윤리 함양 등을 담은 경영철학을 선포했다. 또한 노사 대표가 공동 선언문을 낭독 하며 기업 발전의 공동 주체로서 협력을 다짐했다.

이 행사는 공중과 전국 뉴스를 비롯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전 일간지에서 주요 기사로 다뤄지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기술교육원의 식당 및 사무동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식당 및 사무동은 총 2층, 연건평 343평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1층에는 167평 규모의 식당이, 2층에는 176평 규모의 강의실과 교사실이 각각 들어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달 사우 및 가족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기술교육원에서는 사우 150여명을 대상으로 사내기능경기대회가 열렸고, 한마음 회관에서는 사우 부인들을 위한 ‘제 7기 주부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밖에도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가 현대사계절잔디축구장에서 열리는 등 회사 안팎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1997.4



▲ 현대중공업 사보 1997년 4월호

1997년 4월 현대중공업 사보에서는 ‘경제 위기, 우리가 나선다’를 주제로 한 특집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사우들의 위기의식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시 사우와 사우부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가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대답했고, 73.6%는 회사가 어렵

다면 개인적인 피해도 감수하겠다고 대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해 국내 조선업계가 유례없는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금, 과거보다 안일해진 우리의 위기의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대만 '타 호 마리타임(Ta Ho Maritime)'사의 '켄 호(Ken Ho)'호 개조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벌크선을 시멘트운반선으로 개조하는 대형공사였다. 이 수주는 현대미포조선이 타 호 마리타임사의 시멘트운반선 5척의 공사를 성공리에 완료하며 선주의 신뢰를 얻은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 있었다.



▲ 현대미포조선 '켄 호'호 수리공사 수주 계약식

1987.4

1987년 4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사내 새마을금고가 자산 규모 전국 1위를 달성해, '대통령표창 단체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게재됐다.

당시 현대중공업 사우들이 저축과 근검절약에 앞장선 덕분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가 2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3천693개 금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수리조선소였던 현대미포조선은 노르웨이 '노만탱커스(A/S Norman Tankers)'사의 36만톤급 대형 탱커선인 '해피 엔터프라이즈(Happy Enterprise)'호에 대한 개조공사를 수주했다. 주요작업은 엔진을 교체하고 선실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 현대미포조선에 입거한 국내 원양어선인 '한일호'

이외에도 국내 원양어선인 한일호와 신안호가 수리차 입거하였다.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4월호

1977.4

1977년 4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2천여명의 재일동포들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소식이 실렸다. '이산가족 재상봉사업의 일환으로 고국을 방문한 이들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김용준 씨(당시 53세)가 울산 용잠동에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 이정화 씨(당시 74세)와 동생 김용수 씨(당시 50세)를 32년 만에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눈길을 끌었다.

해외 고위정부관계자의 회사 방문도 잇달았다. 3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알 고사 이비(Al Gosaibi) 공업전력성 장관에 이어 3월 26일 사우디 후세인 보건성 장관, 4월 1일 과테말라 로페즈(L.A. Ropez) 국회의장이 잇달아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현장을 둘러보며 관심을 보였다.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4월호



주름진 손 꼭 잡아주는 '사랑의 집배원'

“할머니, 두유 가져왔습니다. 어디 불편한데는 없으세요? 방은 따뜻하세요?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 몇 번이고 같은 말을 외쳐대면, 어르신들은 대답 대신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성큼 손을 잡으신다. 쓸쓸하고 고독한 노년의 삶에 가끔이나마 방문해 안부를 묻는 집배원들은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반가운 손님이다.

8명의 집배원들로 구성된 '동울산우체국 365봉사단'은 10여년 전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쌀이나 이불 등 생필품을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로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쯤 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으며, 복지관의 '독거노인 관찰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현재, 한 달에 한번 집배원들의 배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음료수를 배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음료수는 지역에서 편의점, 마트 등을 운영하는 독지가들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이다.

이들은 단지 음료수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주거환경, 부수적인 점검까지 병행하며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주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벗이 되어 주고, 도움이 필요한 간단한 일을 처리해주시기도 한다.

“6여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 찾아가던 어르신 중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이학순 집배실장(50세)은 “독거노인들에게는 그저 누군가가 자주 방문하고 챙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업만으로도 엄청나게 바쁘고 힘든데, 동료들이 선뜻 봉사에 함께 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집배원들 뒤로는 성인 남성의 키보다 더 큰 카트에 우편물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다 보니 잠을 내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름진 손을 잡으며 활짝 웃는 순간들이 이들에게도 큰 보람과 행복이 된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음료수와 함께 대가 없는 사랑까지 실은 그들의 오토바이가 힘차게 출발한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세월 무게에 굳은 어깨,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가입 문의 회장 서정환 (010-3854-0093)

“어르신, 어깨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친절하게 안부를 물으며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손길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편안한 웃음이 번진다.

세월의 무게를 싣고 딱딱해진 어깨와, 굵은 날이면 더욱 쭉시는 팔다리에 전문가 못지않은 시원함을 전하는 이들은 ‘자세사랑회’라는 봉사 단체다.

지난 2011년 5월 결성된 이들은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표준자세교육 지도사 과정을 6개월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 봉사에 나서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어진 상진경로당과 서진경로당을 번갈아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마사지와 테이핑 봉사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6년 가까운 경험까지 쌓였으니 이제는 말만 들어도 아픈 곳을 쭉쭉 잡아내는 ‘의사 선생님’들이다.

이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오늘도 줄을 서 테이핑과 마사지 순서를 기다린다.

“나는 여기 어깨도 좀 아픈데, 한 번만 더 만져주면 안 돼?”하는 어리광 섞인 목소리에 이들의 손이 더 바쁘다.

회원들 모두 생업이 따로 있는 터라 매일 방문할 수가 없으니, 한 분 한 분 교정이 끝난 뒤에는 스트레칭 교육을 통해 평소에도 스스로 통증 부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봉사에는 회원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다. 고사리 손으로 어르신들에게 인마를 해주거나, 말동무가 되어 주며 봉사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결눈질로 배운 마사지 기술을 선보이는 아이들의 손끝이 야무지다.

이들은 정기적인 경로당 봉사 외에도 각종 나눔 장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해 일반 시민들에게 테이핑과 마사지의 효능을 알리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올해도 자세사랑회 회원들의 마지막 토요일은 늘 어르신들과 함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세사랑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테이핑 요법과 마사지를 배워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옛 향수 불러일으키는 '감성 공간'



아름다운 기억들은 추억으로 간직된다. 유년의 웃음과 청년의 땀은 세월을 따라 흐르며 우리를 키웠다. 그 옛날의 시간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성남동에 위치한 감성공간이다.

성남동은 울산의 구도심으로, 울산에서 80~90년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특별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곳이다. 요즘은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볼거리, 먹거리들이 한층 많아졌다.

시계탑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조금 걸다 보면 무수히 들어선 카페들 사이로 '감성창고'를 찾을 수 있다. 커피숍과 갤러리 사이,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다.

상설 프리마켓인 이곳은 2년 전 개점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연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물건들과 작은 공방에서 만든 트렌디한 물건들이 어우러져 특유의 감성을 자극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초며 디퓨저들의 은은한 향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는다.

외국에서 들어온 구제 옷가지는 돌고 도는 유행을 거쳐 복고풍이란 이름으로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고, 세월의 손길이 닿아 더욱 고풍스러워진 손뜨개 패드나 이불들은 어릴 적 흑백 텔레비전 위에서, 장롱 속에서 보았던 친근한 모습이다.

작은 물건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더 정감이 가고 재미가 있다.

필름카메라와 소형 카세트 등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선반 위쪽에 자리잡은 피규어들은 최근 마니아층이 늘어나면서 자리를 더 넓혔다.

소규모 공방에서 가죽이나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액세서리들과 천으로 만든 크고 작은 가방들은 모두 하나뿐인 물건들이라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감성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부는 가게의 전체적인 어울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분위기가 좋아 초창기에 일을 좀 봐주다가, 이제는 아예 가게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고 특별한 애정을 전한다.

누구나 이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진열대로 쓰이는 칸막이 한

칸의 임대료는 한 달에 1만원으로, 입점계약을 하면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의 2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면 된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은 물건이나, 손재주를 발휘해 만든 물건 등 어떤 물건도 괜찮다.

아키자기한 장난감이 많아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안성맞춤인 이곳으로 감성 여행을 떠나 보자.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하늘 위로 드론 날리며 미래를 배운다!

드론(Drone/무인기)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혹자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곧 1인 1드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을 조종해 본 사람이라면, 이 작은 비행물체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생각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마음회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강좌를 마련해 드론 입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날아라 드론! 세상을 보자'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 강의는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총 두 달 과정(8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드론의 역사에서부터 비행 시 준수 사항, 비행 연습, 드론 만드는 법, 드론 날리기, 비상착륙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드론'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말로,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에서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지만,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택배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취재를 위해 강의를 찾은 날은 미니 드론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팀별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이론과 관련된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체육관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실습을 시작한다.

천장 위로 '윙~'하고 올라가던 드론이 떨어지고, 부딪히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정신을 차리고 인간힘을 다해 두 손으로 조종을 해 보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보였다.

강사 구본원 씨는 "드론은 기종에 따라 설정된 값과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기종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체가 추락하거나, 분실될 수도 있고, 장애물에 부딪혀 망가지거나 문화재 등을 파손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강생 안성은 양(명덕여중 3년)은 "주말이면 종종 야외에 나가 드론을 날리곤 하는데 하늘 높이 나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빨리 배워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드론은 앞으로 더 많은 산업분야에 응용되며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이다. 새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된 드론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지 기대된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한마음회관의 드론 강좌 현장을 블로그 'hi,hi'에서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한마음회관 드론 강좌
일시 : 토요일 2~4시(주 1회, 8주 과정)
수강료 : 25만원/2개월 (교재 및 재료비 별도)
정원 : 15명



‘나무향 솔솔~’ 자연과 하나 되는 오감 체험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뜨리며 인사하는
봄꽃들이 반가운 계절이다.
살랑대는 봄바람에 덩달아 흔들리는 마음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 없는 것을 보니,
나들이의 계절이 오긴 왔나 보다.
멀리 가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의 부담 없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다.

나무 직접 만져보는 다양한 체험

울산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김해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생활 속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환경 소재인 '나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세워졌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나무향이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곳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나무를 매개로 교감하며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 외관이 멋스러움을 풍기는데다가, 반룡산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 신선한 공기와 함께 탁 트인 전망까지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산비탈 위에 세워져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체험장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에 마련된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마치 시골 할머니댁에 놀러온 듯 편안한 대청마루가 가장 먼저 반겨준다. 이곳에서는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와 마을 어귀에서 있던 장승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풍경이지만, 전래동화 속 그림과 연관시켜 설명하면 조상들의 생활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밖에도 목재의 정의와 쓰임새, 나무의 종류와 목재가 생산되는 과정, 세계의 목구조택 등을 모형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나무로 만든 장난감들을 직접 만지며 촉감 공부를 할 수 있는 2층 목재체험놀이터를 추천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볼풀과 흔들 목마, 텐트, 블록 등의 교구들이 가득해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된다.

편백나무의 향기에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나무 특유의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놀이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만드는 나만의 소품

놀이터 옆에는 목재 및 환경 관련 도서들을 읽을 수 있는 목재테마도서관과 '이든 카페'가 순우리말로 '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든'은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수익금은 저소득층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 저렴한 커피값으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다.

한편, 영상컨텐츠홀에서는 웹캠을 통해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동물과 곤충을 채색해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3층으로 올라가면 목재와 관련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 홍보관이 나온다. 다양한 전시품과 구조물을 통해 목재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전통 가옥인 한옥의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4층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목공 체험공방이 몇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서는 독서대, 연필꽂이, 선반, 냄비 받침과 트레이 등 생활 속 목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곳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필히 예약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체험시간표를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4천원~2만5천원의 비교적 저렴한 재료비로 실용적인 나만의 소품을 만들 수 있으니 꼭 한 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테라스에는 쉼 만한 나무 테이블이 많아 간단히 도시락을 준비해가면 근사한 피크닉 기분도 낼 수 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소소한 일상이 주는 달콤한 행복을 이곳에서 느껴보면 어떨까.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김해 목재 문화 체험장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5-49

전 화 070-4278-5569

홈페이지 <http://wood.gimhae.go.kr/>

이용 시간 3월~10월 (9시~18시)

11월~2월 (9시~17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기간

2017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따사로운 햇살에 마음이 들뜨는 계절이다.
 북적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면
 느낌이 행복이 되는 슬로시티(Slow City) 청산도로 떠나 보자.

청산도의 시계바늘은 느리게 돈다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러 '청산(靑山)'이라 불리는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뱃길로 50여분을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다도해 최남단 섬이다.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의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은 마치 섬 전체가 하나의 영화 세트장인 것처럼 매력적이다.

돌맹이로 차근차근 쌓아올린 낮은 돌담, 물길에 논바닥 아래로 흐르는 구들장 논들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줄기와 하나가 되어 살가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4월의 청산도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보리밭에 노란 유채꽃을 뿌려놓은 듯 한 폭의 풍경화가 되어 찬란한 봄을 그려내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황톳길은 풍경 속의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슬로길'이란 이름이 붙은 이 길들은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한 곳으로, 11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 '서편제'의 촬영 무대로 유명한 당리언덕길과 구불구불한 돌담으로 채워진 상서마을이 대표적이다.



더디게 걸어야 제 맛인 슬로길은 현지인들의 삶의 풍경과 각각의 사연들이 내뿜었던 발걸음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

자연의 시간에 몸을 맞춰 걷는 축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인 청산도는 2007년 신안 증도, 담양 창평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처음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느림이 행복이다'를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슬로길 걷기(11코스, 42.195km), 슬로시티 지정 10주년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산도 일원에서 한 달간 펼쳐진다.

특히 청산도 일대를 운항하던 배들의 나침반이 오작동하면서 알려지게 된 범바위의 자기장은 한 해의 안녕을 빌며 호랑이의 강한 기운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이 된다. 또 이번 행사에는 청산도 슬로쿡, 소달구지 체험 등 기존의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이 추가돼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청정 먹거리인 해조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



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기간이 겹쳐, 완도를 들른 김에 함께 방문해 본다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느림이 아름다운 청산도에서 고운 봄빛에 머물러 발길을 멈추고 삶의 의미를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최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기간 : 4월 1일(금) ~ 4월 30일(토) / 30일간

장소 : 전남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가는 길 : 완도항에서 카페리 운항(축제 기간 중 하루 10~12번 운항)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 4월 14일(금) ~ 5월 7일(일)

장소 : 완도항, 완도해변공원, 장보고유적지 일대

하늘과 바다, 바람이 만드는 초록에 물들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한다.
 바다와 하늘과 나무는 그날의 기분과 날씨에 따라 푸른빛이 되기도,
 초록빛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회색빛이 되기도 한다. 보고 또 봐도 늘 다른 모습이다.
 영덕 블루로드는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끼고 걷는 도보 여행길로
 걸음걸음마다 옥빛 바다가 편한 친구가 되어 함께 한다.
 가장 평화롭고 낭만적인 걸음이다.



고래불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

괴시리전통마을

대소산봉수대

남씨발상지

축산항

경정리대개원조마을

해맞이공원

고불봉

풍력발전단지

강구터미널

삼사해상공원

강구항

장시해수욕장

대개공원



덕천해수욕장 송림숲길



대계누리공원



삼사해상산책로

64.6km, 자연과 함께 걷는 길

블루로드는 빼어난 절경과 함께 푸른 동해바다의 내음을 느끼며 걷는 명품 트레킹 코스다.

영덕군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남정면 부경리를 시작으로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약 64.6km의 해안길로, 부산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770km 해파랑길의 일부이기도 하다.

블루로드(Blue Road)라는 이름은 맑고 푸른 바다(Beach), 새로운 빛(Light), 전설과 이야기가 풍부한 곳(Legend), 언젠가 가보고 싶은 관광 목적지(Utopia), 독특한 지역문화가 있는 곳(Unique), 희망의 에너지(Energy), 흥미진진한 장소(Exciting), 일상생활의 탈출구(Exit) 등 8가지 영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길을 걷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코스마다 각기 다른 매력

64.6km의 해안길은 크게 A~D의 4코스로 나뉜다.

‘빛과 바람의 길이라 부르는 A코스는 강구항과 고불봉,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풍력발전단지를 거쳐 해맞이공원까지 이어지는 17.5km 구간으로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주로 아이와 함께 걷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잠깐의 휴식을 원한다면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들러볼만 하다. 태양열로 데운 창포물로 족욕 체험을 하며, 아이와 함께 다가올 그린에너지 시대를 상상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푸른 대계의 길이라 부르는 B코스는 해맞이공원에서 대탄 어촌 체험마을, 대계원조마을, 블루로드다리, 축산항을 거쳐 영양 남씨 발상지까지 15km 구간이며, 약 5시간이 소요된다. 바다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길로 4개의 코스 중 제일 인기가 많다.

‘목은 사색의 길이라 부르는 C코스는 영양 남씨 발상지에서 사진 구름다리, 목은이색기념관, 대진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까지 17.5km 구간이며, 약 6시간이 소요된다. 숲길이라고도 불리는데,

파도소리도 멀리하고 싶을 만큼의 고요함을 원한다면 이 길이 정답이다. 말 없이 포근히 나를 안아주는 나무와 함께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색에 잠기게 된다.

‘쪽빛 파도의 길이라 부르는 D코스는 대계공원에서 장사해수욕장, 삼사해상공원을 거쳐 강구터미널까지 14.1km 구간이며,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해수욕장의 모미인 백사장을 윈 없이 걸어볼 수 있는 코스로 뜨거운 햇볕 위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반가운 곳이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

블루로드는 하나의 코스를 정해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춰 걷는 것도 좋지만, 드라이브 코스로 둘러보는 것도 좋다. 중간 중간 차를 세우고 마주하는 정경도 황홀할 만큼 아름답고, 사이사이 난 길을 걷는 짧은 산책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영덕의 해안선에는 걸음마다 자연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교향곡이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다. 속이 다 비치는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짙게 갈라진 절벽 위로 흙길의 보드라운 감촉이 모든 신경을 깨우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바다의 냄새가 모든 근심을 없애준다.

햇살에 반짝이며 빛나는 바다와 변화무쌍한 해안선이 만드는 아름다운 풍광을 눈과 가슴에 가득 담으며 올 봄에는 걷고 또 걸어보자.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고래불해수욕장

타국에서의 끔찍했던 신혼 생활

'당동!'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다란 눈을 가진 아기가 영금영금 기어 나와 반겨줬다.
 아이를 품에 앉고 어서 들어오라며 방으로 안내하는 박유란 씨(32세)는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이다.
 이제 막 10개월이 지난 예진이는 엄마의 품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사람의 품에 겁석 안겼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느라 어기적거리며 일어서려는 움직임이 귀여웠다.
 아이의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유란 씨가 이렇게나마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으로 시집을 온 후 그녀의 삶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다.
 박유란 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08년 한국인



아이들의
 웃음만이 희망
 타국에서의
 모진 삶

집은 화정동 월봉시장 안에 있었다.
 깨끗하게 정비된 시장을 오가는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낯설고 초라한 다세대 주택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앞마다 부피 큰 세탁기가 나와 있었다.
 안전창도 없는 복도에서 바라본 해질녘 하늘은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에 막혀 답답하기만 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11살의 아들과 함께였다. 23살의 유란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11살 아이의 엄마가 됐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누이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술에 찌들어 살던 남편은 급기야 유란 씨를 때리기까지 했다. 점차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지쳐갈 때쯤 첫째 아이가 들어섰다.

임신 뒤의 삶은 더 끔찍했다. 생활비가 없어 만삭 때까지 반찬가게에서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고, 입을 옷이 없어 겨울에도 봄과 여름옷을 켜켜이 입으며 버텼다. 태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다.

출산 후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버틸 수 없던 유란 씨는 결혼 6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부부에게 다시 찾아온 시련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후에는 낮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찾아다니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베트남 공동체에서 지금의 남편 웬탄공 씨(32세)를 만나 2014년 재혼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타국에서의 힘든 삶을 서로 위로하며 둘째 예빈이(3세)와 셋째 예진이(10개월)를 낳았다.

그렇게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던 부부에게 시련은 또 다시 찾아왔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기 불황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용직이라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아이 셋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유란 씨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밀린 월세와 생활비가 걱정이다.

이들 다섯 가족의 수입이라고는 2월부터 남편 앞으로 나오고 있는 실업급여 37만원이 전부다.

한참 잘 먹고 커야 할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픈 부부다.

유란 씨의 건강도 걱정이다. 블록한 목에 손이 자꾸 올라가서 물어보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래 전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방치해온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기가 두려워 그저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한국 아이들처럼 기르는 게 꿈

어려울수록 가족과 고향이 더 그리웠다. 하지만 다섯 식구가 움직이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다녀가신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예린 이(8세)는 올해 초등학생이 됐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다는 씩씩한 예린이지만, 입학 전 한글조차도 제대로 떼지 못해 걱정이다.

한국말을 곧잘 하는 유란 씨도 글씨는 잘 모르고, 남편은 말하는 것도 서툴어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한다.

복지기관에서 나온 한글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면, 유란 씨도 함께 배우고 싶어 옆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유란 씨는 아이들이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다.

아이들의 눈망울과 웃음소리에 힘들고 모진 삶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다음 계좌 농협 302-0895-5007-11(예금주: 박유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지배하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
 한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겪는 질병의 80%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피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 보자.

교감·부교감신경의 조화 깨져 면역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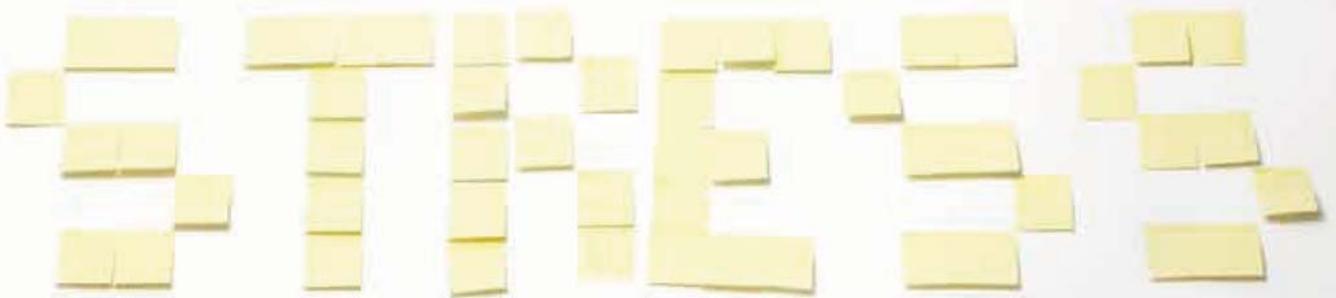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통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맥박과 호흡을 빠르게 하고,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저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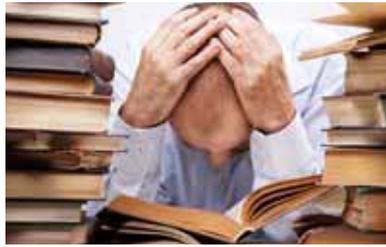
반대로 심신이 평온을 되찾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亢進)되

어 손상된 조직을 개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야말로 생체의 균형(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 결과 혈액 속 적혈구의 세포막이 전위차(電位差)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는 적혈구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활동이 둔해지면 과립성 백혈구가 증가해 활성산소(산화력이 강해 생체조직을 공격하는 유해 산소)가 과다하게 분비된다.

활성산소는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한다. 특히 면역세포 노화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된다.

만성적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도 저하시킨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체의 부신(副腎/콩팥위샘)은 코티졸(Cortisol)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티졸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돕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면역계를 억압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세포의 효율적인 제거를 방해함으로써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

산책과 명상으로 '스트레스 안녕'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스멀스멀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야 한다. 다행인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의 반감기가 1~3분으로 매우 짧다는 것이다. 1분을 참으면 하루가 평온해지는 이유다.

우리의 감정은 내분비기관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계속돼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빨리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자극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비는 반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분비된 화학물질을 중화시켜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가벼운 율동이나 걷기 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쇄시키는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명상도 마찬가지로 기전으로 우리를 안정시킨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숨을 참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 보자. 몇번 반복하고 나면 화가 조금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복식호흡을 하며 숨을 참는 동안 횡격막에 분포돼 있는 부교감신경절이 자극을 받아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뇌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전두엽 좌측피질이 활성화돼 행복감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인자다.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먼저인지 긍정적인 감정이 우선인지는 닭과 달걀의 관계일 수 있지만, 기쁨과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산책과 운동, 요가와 명상 등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글 김문찬 교수(울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실패해도 괜찮아” 격려하며 나아가는 법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고, 뻔한 잔소리쯤으로 여겨진다.

각종 자기계발서와 강연은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들어온 이야기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 ‘뻔한’ 자질이 우리의 예상보다 몇 배는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신감은 능력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거나,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게 하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

진정한 자신감은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자신감은 언제나 내 안에서 만들어지며, 결코 밖에서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의 경험 축적이 자신감의 원천

자신감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나하나 축적해 가면서 만들 수 있다.

이는 일상의 업무를 아무지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나란 사람은 항상 최고 수준으로 일을 마무리 한다’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위의 칭찬이나 격려도 도움이 되겠지만, 성인들에게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칭찬이나 격려가 훨씬 더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목록을 생각해 보자. 대화록 가운데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각오와 다짐 등 확신에 찬 말이 자주 들어가 있다면 자신감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당당한 자세가 자신감을 만든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감 키우는 TIP

- 작은 성공부터 추구한다.
- 실패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나만의 강점을 키운다.
- 한 번의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오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기댈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의 멘토를 만든다.





어깨를 펴고, 등을 똑바로 세우며 턱을 높이 든다. 발을 끌지 말고 활기차게 걸으며 똑바로 앉는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응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선을 맞춘다. 그것은 자신이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대화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감정을 느끼는 뇌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결국 자신감 있는 자세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자신감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커리어의 완성은 자신감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신감 역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할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세운 뜻,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나아가리라는 결단으로부터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작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만으로 우리는 자신을 키울 수 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혹, 자신감이 부족하다 생각된다면 작은 행동부터 바꿔보길 바란다.

글 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

자신감의 척도를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

· 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대개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더 크게 웃는다.	
· 집에서는 가끔 벌거벗은 모습으로 편안하게 생활한다.	
·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다.	
· 이따금 큰 소리로 엉터리 노래를 부른다.	
· 가끔 원칙을 들어 상사의 말에 반박한다.	
· 직장에서 이따금 화식을 계획한다.	
· 술플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실컷 운다.	
· 노여움이나 근심을 오래 품고 있지 않는다.	
· 축제에서 뒷전에 머무는 일 없이 즐긴다.	
·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더라도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지킨다.	
·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멋지다고 생각한다.	
· 나 자신에게 관대한 편이다.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팔이나 옷소매를 건드려곤 한다.	
·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6개 이하 당신은 자신감이 약하다

자신을 위축시키다 보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활도 불편해진다. 당신이 조금 더 호방한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더 편하게 대할 것이고 그러면 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이다.

7~10개 당신은 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1개 이상 당신은 자신감이 충분한 사람이다.

당신은 옳은 것을 찾아 행하고 그 결과를 웃으며 태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감으로 '뻔뻔스러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일보

투자자 기업설명회 대성황



현대중공업그룹이 3월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해 큰 변화를 앞둔 현대중공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권오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분야 선도 기업의 위상을 다지고, 분리 회사들도 각각 세계 톱 5를 목표로 힘찬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독립법인 대표들이 나서 회사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전략을 소개했으며, 투자자들은 사업보리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농협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



현대중공업은 3월 8일 본관에서 권오갑 부회장, 강환구 사장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연간 2만4천포대(20kg 들이)쌀을 농협에서 공급받는다.

또한 양사는 상호 공동사업 개발과 추진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권오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현대중공업과 농협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현대중공업이 3월 24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 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과 가삼현 사장을 사내이사로, 최 혁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최 혁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가결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수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분할을 통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옛 명성을 회복하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호노르드 FPU 생산 개시



현대중공업이 아프리카 콩고 해상에 '모호노르드 FPU(부유식 생산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원유와 가스 생산에 들어갔다.

2013년 토탈E&P공고사로부터 수주한 이 설비는 길이 250미터, 폭 44미터 규모로, 하루 최대 10만 배럴(bb)의 원유와 250만 입방미터(m³)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모호노르드 FPU는 현대중공업이 상부설비, 현대삼호중공업이 하부설비를 각각 제작했으며, 지난해 10월 콩고 현지로 출항해 약 4개월 간의 설치작업을 거쳐 완공됐다.

선박용 발전기 신제품 개발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이 최근 기존보다 무게를 20% 줄인 '선박용 동기발전기' 신제품을 개발해 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은 선박의 중형엔진과 연결돼 최대 10MVA(메가볼트암페어)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최적 설계를 통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동일한 내구성과 성능을 갖췄다. 또한 생산 공정 단계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는 '부품 모듈 설계'를 적용해 원가를 약 10% 절감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선박용 동기발전기 분야에서 30%대의 세계 시장 점유율로 1위에 올라 있다.

R&D 아이디어 발표대회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은 3월 24일 용인연구소에서 주영걸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D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총 17개팀이 참가해 제품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또 현대일렉트릭은 이날 지난 대회에서 '변압기 탭체인저(Tap Changer) 설계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이를 생산에 적용해 실제로 불량률을 낮춘 김용한 책임연구원(품질신뢰성연구실) 팀에 우수상을 수여했다.

북미 건설장비 시장 공략 강화



현대건설기계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린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인 '콘엑스포(Conexpo) 2017'에 참가해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전시회에 약 2천90㎡(약 63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22종의 최신 장비를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또 장비의 우수한 성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 부스'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주요 딜러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펼쳤다.

건설기계 우수 협력사 인증패 수여



현대건설기계가 3월 6일 건설기계 본관에서 공기영 사업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사 통합 품질인증(HiQ)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하반기 품질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성보P&T(주) 등 4개 사의 협력회사 대표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협력회사들은 향후 신규 부품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계약 입찰 참여 시에도 부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한국노사협력대상 수상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9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해 9월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한 걸음씩 양보해 단체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함으로써 '20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업계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불황 극복을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주주 계약식에 참석해 선주사에 최고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약속하며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노사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바 있다.

제 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현대미포조선이 3월 24일 사내 한우리화관 대강당에서 주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 43기 제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 4개 안건이 상정, 승인됐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기준 4조 2천95억여원, 영업이익은 2천75억여원, 당기순이익은 396억여원을 각각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이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고망간강' 적용 첫 선박 착공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최초로 LNG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한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일신해운으로부터 수주한 5만톤급 벌크선으로, 최근 선각1B 공장에서 일신해운 및 포스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재절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개발한 신소재인 고망간강은 영하 162°C에 달하는 극저온의 LNG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존 합금소재에 비해 강도와 인성이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선박에는 고망간강을 적용한 연료탱크뿐 아니라 벙커C유와 LN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엔진'이 탑재된다.

다울회, 일일호프로 나눔실천



현대미포조선 사내 봉사모임인 다울회(회장: 황남환)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다울회는 3월 21일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수급자들에게 문화상품권과 라면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다울회가 지난 3월 9일 개최한 '사랑나눔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일일호프 행사에는 현대미포조선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다울회는 지난 2015년부터 △사내 샤워장 정리정돈 △사내 정확활동 △독거노인 대상 연탄 배달 등 다양한 사내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선박 2척 '2016 세계 우수 선박'에 선정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건조한 선박 2척(S787,S832)이 조선해운 전문 지인 영국 네이비아키텍트로부터 '2016년 세계 우수 선박'에 선정됐다. 그 중 지난해 3월에 인도된 15만 8730DWT급 원유원반선인 '트리니티'호는 LNG 저장탱크를 탑재해 이중연료 추진시스템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 인도된 '발파라이스 익스프레스'호는 기존 선형보다 컨테이너 400여개를 추가로 탑재할수 있게 설계돼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이다. 이로써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3척의 우수 선박을 배출했다.

세계 첫 LNG추진 유조선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대형 LNG추진선 4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선박은 러시아 국영해운사인 소브콤플로토사로부터 수주한 11만4천톤급 LNG 유조선으로, 길이 250미터, 폭 44미터, 높이 21미터로 얼음이나 방산에 대비한 내방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SOx) 배출 90%와 질소산화물(NOx) 배출 80% 등을 감소시켜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수주한 4척의 선박은 2018년부터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원유운반선 S811호 진수품평회



현대삼호중공업이 3월 10일 11만4천톤급 원유운반선 S811호선에 대한 진수품평회를 10일 열었다. 이날 진수품평회에는 이상균 전무를 비롯한 담당중역과 부서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상균 전무는 총평을 통해 성공적인 진수를 이뤄준 모든 부문의 노력을 격려하고, "관리자의 지도 능력을 활용해 작업 인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S811호선은 후행작업 후 오는 4월말, 선주사인 동아탱커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전자반입시스템 개발, 본격 운영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개발한 전자반입시스템의 사전검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반입반출물품의 구별을 위해 실물사진과 물품의 정보 등을 등록해 놓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공기구나 자재 등의 반입 시에 보안요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다 보니 다시 반출할 때 동일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해 무단반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전자반입시스템 개발로 반입물품과 반출물품의 대조가 가능해져 자산의 무단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대학교 |



아시아대학평가서 국내 12위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최근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17년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 12위, 아시아 66위에 올랐다고 3월 16일 밝혔다.

울산대는 △논문당 피인용수(30%) 4위 △산업체 연구수입(7.5%) 12위 △연구 실적(30%) 14위 △교육 여건(25%) 15위 △국제화 수준(7.5%) 15위를 기록해, 지방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아시아 100대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울산대학교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40개 대학의 총장 및 관계자 등 200명을 초청한 가운데 '아시아대학총장회의(THE Asia Universities Summit)'를 개최하고, 대학과 기업의 협력 관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 울산과학대학교 |



청년CEO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 8기 청년 CEO육성사업'을 운영한다.

울산과학대는 올해 (재)울산경제진흥원으로부터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년 CEO를 육성하게 된다.

신청자 중 선발된 20개팀은 창업관련 정보와 성공 노하우를 비롯해, 공용 사무실과 사무용 기기, 회의실, 휴게실, 제품촬영실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 멘토단을 가동, 재학생과 졸업생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7명을 사업가로 양성했다.

| 서울아산병원 |



국내 최다 장기 이식 수술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최다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963건의 장기 이식 수술을 실시했으며, 이중 간 이식 470건, 신장 이식 363건, 심장 이식 52건, 췌장 이식 42건, 각막 이식 24건, 폐 이식 12건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통계를 시작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연속으로 국내 최다 장기 이식 수술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 2월까지 총 1만882건을 시행해 국내 전체(4만5천933건) 장기 이식 수술 가운데 23.7%를 차지하고 있다.

42주년 개원 기념식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웅기)이 3월 2일 본관에서 '제 42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웅기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학과 병원 발전에 기여한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공로패 전달 및 올해의 교수상 시상 등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2주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권역심뇌혈관센터 유치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다.

| 울산대학교병원 |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5월 1일까지 '제 6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대회에는 전국 대학(원)생과 만 39세 이하의 일반인 예비창업자, 창업 1년 이내의 기업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들은 6월 중순부터 9주 동안 아산나눔재단 창업지원센터인 '마루180'에서 사무공간을 지원받아 실제 사업을 시행·점검하게 되며, 결선에 진출한 팀에게는 3백만원~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 아산나눔재단 |



봄맞이 패키지에 다양한 할인

호텔현대울산(대표이사: 고승환)이 '봄맞이 패키지 상품' 2종을 선보인다. '러브 블라썸(Love Blossom)'은 4월 15일까지 봄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을 위해 제공되는 상품으로, 패밀리 트윈룸과 함께 피크닉 도시락 2종, 체크인아웃 시간 1시까지 연장, 엑스트라 베드 1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레스토랑 이용 시 10%, 사라 테이크아웃 음료 50% 등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를 품은 달' 패키지는 5월 31일까지 슈퍼리어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식 30% 할인, 울산대교 야간 전망대 투어(금, 토, 공휴일 전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닭띠생 인증을 하거나 호텔 내부에서 찍은 개인사진을 SNS에 올리면 치킨과 생맥주 2잔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호텔현대울산 |



상상이상의 마술이 한 자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최현우가 초대형 매직 콘서트로 현대예술관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인 최초 국제 마술 대회 수상, FISM(세계마술올림픽) 최연소 심사위원 역임 등 세계적인 마술사로 성장하고 있는 최현우의 프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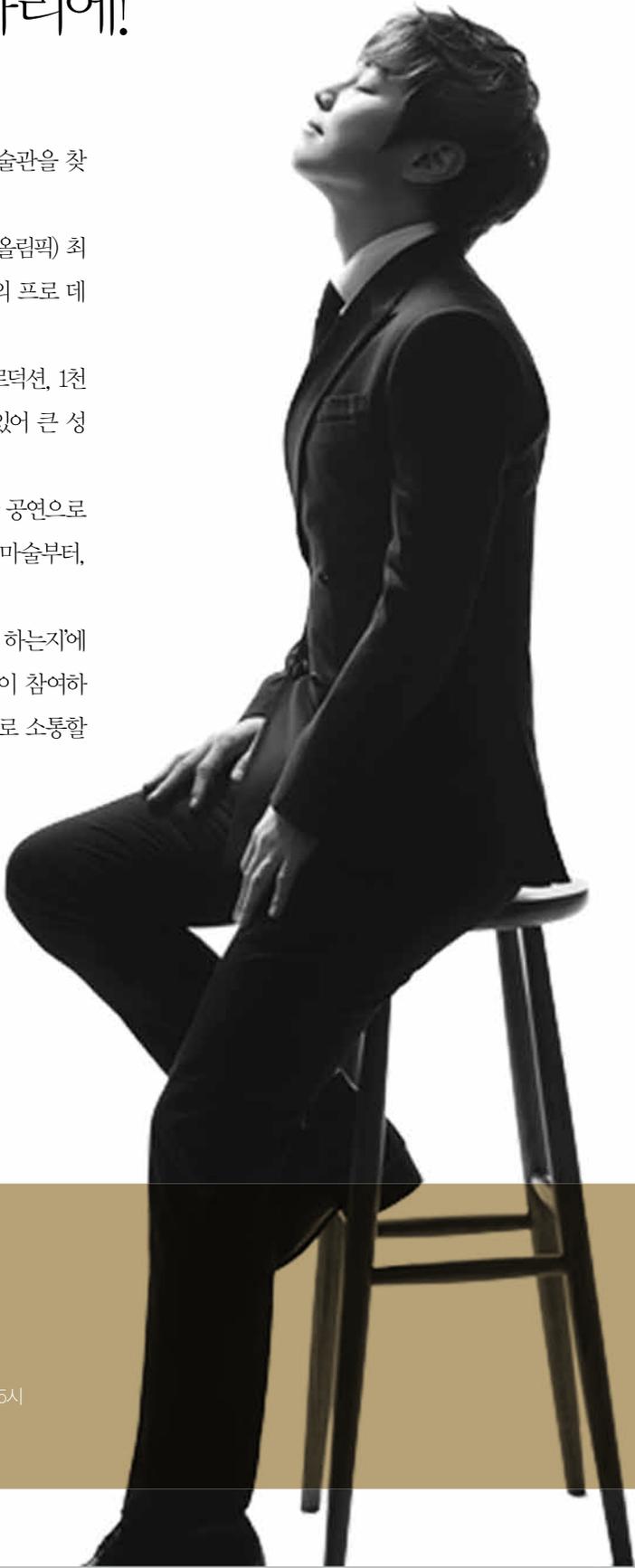
최현우는 '최현우 매직콘서트'라는 브랜드 공연으로 총 13개의 프로덕션, 1천회가 넘는 공연, 86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과 완성도에 있어 큰 성공을 거뒀다.

특히 이번 매직 콘서트는 최현우의 20년 마술 노하우를 집대성한 공연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보인적 없는 최초 공개 마술부터, 관객이 열광했던 최고의 마술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또한 'ASK?&answer!'이라는 공연 제목처럼, '우리는 왜 마술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관객과 함께 찾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관객 전원이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매직을 기획하는 등 공연 내내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스케일 또한 상상 이상이다. 11톤 트럭 5대 규모의 거대한 세트와 무대 전면을 활용한 영상 맵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매번 새로운 시도로 국내 마술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온 최현우가 만들어갈 마법 같은 120분을 함께 해 보자!



'ASK?&answer!'



관람 정보
일 시 | 6월 3일(토) ~ 4일(일)
 토요일 오후 2시, 6시 / 일요일 오후 1시, 5시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 1층석 5만원, 2층석 3만5천원

CHRIS NORMAN

팝송의 ‘7080’ ‘스모키’를 듣는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밴드이자, 1970~80년대 팝음악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록 그룹 ‘스모키(Smokie)’.

아름다운 어쿠스틱 선율과 호소력 짙은 보컬로 전 세계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국내 팝 역사상 최초로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스모키’의 리드 보컬 크리스 노먼(Chris Norman)의 내한공연이 울산 최초로 현대예술관에서 열린다.

1975년 두 번째 앨범부터 빅히트를 기록한 스모키는 1982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크리스 노먼은 애절하고도 달콤한 허스키 보이스로 수많은 히트곡을 노래하며 스모키의 인기에 큰 힘을 보탤으며, 1986년 밴드를 탈퇴한 후에도 솔로 히트곡들을 만들어 내며 왕성한 활동으로 국내 · 외 팬들과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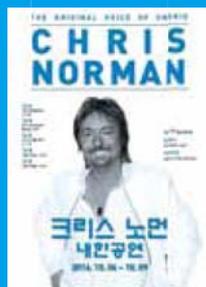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Living next door to Alice’, ‘I’ll meet you at midnight’, ‘Stumblin’ in’, ‘What can I do’, ‘Mexican girl’ 등 스모키의 역사적인 히트곡들을 크리스 노먼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스모키 음악을 오리지널 보이스로 들을 수 있는 환상적인 시간을 놓치지 말자!

Profile 크리스 노먼 Chris Norman

크리스 노먼은 록 그룹 ‘스모키(Smokie)’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들을 남기며 팝 음악의 대표주자로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솔로 활동과 프로듀싱에 전념하기 위해 1986년 팀을 떠난 크리스 노먼은 본인 밴드와 함께 전 세계를 순회하며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한국에 큰 애정을 보여 온 그는 2018년 8월 한국을 방문해 KBS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하며 7080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작년 10월부터는 내한 전국 투어를 통해 한국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관람 정보

일 시 | 5월 24일(수) 저녁 8시

장 소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 R석 8만5천원, A석 6만5천원, B석 4만5천원

발톱 세운 호랑이, 골 사냥에 나서다!

K리그 클래식의 개막전이 펼쳐진 3월 4일, '동해안 дер비' 라이벌인 포항을 상대로 정재용의 기적 같은 역전 결승골이 터져 문수구장은 일제히 호랑이의 포효로 뒤덮였다.

리그 개막을 기다리며 긴 겨울을 지냈을 홈팬들에게 울산은 최고의 '극장 경기'를 선보이며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이 경기로 울산은 K리그 1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으며,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정재용과 골키퍼 김용대는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다.

울산현대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이하 ACL) 조별리그 첫 홈경기에서도 브리즈번 로어(호주)를 6대0으로 대파하며 '아시아 강패'의 부활을 알렸다.

승리에 굶주렸던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세웠다. 김도훈 감독이 보여줄 공격축구는 지금부터다.

혹독한 일정 이겨낼 승리에 대한 '열정'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일정이다. K리그와 ACL을 병행해야 하는 울산은 ACL 2경

기를 포함해 홈과 원정을 오

가며 이번 달에만 총 7경기

를 치러야 한다. 올 시즌 가

장 많은 경기 수다.

광주에서의 원정경기를 마치자마자 시간과 기온이 다른 태국 SGG스타디움에서 있을 원정을 준비해야 하고, 작년과 달리 경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몰아붙이는 울산의 변화된 스타일에 선수들이 지칠까 염려도 된다.

다행인 점은 선수단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것이다. 경험 많은 베테랑과 파이팅 넘치는 신예 선수들이 서로를 다독이며 팀워크를 다져가고 있다.

김도훈 감독은 "경기를 더해갈수록 호흡이 맞아가고 있다"며, "리그가 10월까



지 계속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관리와 부상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녹록치 않은 일정 속에서도 감독과 선수들 간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명가(名家)재건'이라는 울산현대의 목표가 푸른 잔디 위에서 무르익고 있다.



울산현대 4월 경기일정

일시	상대팀	장소	비고
4/2(일) 오후 3시	강원 FC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4/8(토) 오후 3시	제주 유나이티드	광주월드컵 경기장	K리그
4/12(수) 저녁 7시 30분	무양통 유나이티드 (태국)	태국SCG 스타디움	ACL
4/16(일) 오후 5시	서울 FC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4/22(토) 오후 3시	전남 드래곤즈	광양축구 전용구장	K리그
4/26(수) 저녁 7시 30분	가시마 애틀러스 (일본)	울산문수 축구장	ACL
4/30(일) 오후 5시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축구 전용구장	K리그



이달의 선수 - 정재용



'이기는 축구'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게요!

1차 수비의 저지선이자 공격의 시발점인 수비형 미드필더(MDF)는 팀의 굵은일을 도맡아 하는 포지션이다. 울산이 K리그 1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된 데는 수비형 미드필더 정재용의 역할이 가장 컸다. 사보 편집실에서는 개막전에서 깜짝 멀티골을 터트리며 팀을 승리로 이끈 정재용 선수를 만나 보았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재용(이하 정) : 안녕하세요, 울산현대축구단 정재용입니다. 멋진 경기로 팬분들께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개막전에서 놀랄만한 활약을 선보였다. 골을 넣고 기분이 어땠나?

정 : 약속된 플레이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골은 발등에 맞는 순간 '골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진짜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골 네트가 흔들리는 걸 보고 소름이 짝 돋았습니까. 라이벌 매치이니만큼 꼭 이기고 싶었는데 결승골까지 넣게 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개막전이었던 '동해안더비' 말고도 울산과 전북의 '현대(家)더비'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라이벌과의 승부에서 더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포항과의 개막전도 꼭 이기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전북전에서도 반드시 울산 팬분들께 승리를 선물하겠습니다.

오르사와 더불어 최근 울산에서 가장 '핫(Hot)'한 선수다. 알고 있는지.

정 :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사보와 블로그, 사내 방송에까지 나간다니 뭔가 쑥스럽네요. 더 열심히 뛰라는 응원으로 알고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의 생활은 만족하는지.

정 : 이천수, 최성국 선배가 함께 뛰었던 05년, 06년의 모습을 보면서 울산현대가 역대 K리그 팀 중 최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울산 이적으로 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팀에서 뛰게 돼 너무 행복합니다.

주변에 소음도 없고 훈련 시설도 좋아서 프로선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최강의 울산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 시즌 울산현대의 예상 순위는?

정 : 당연히 우승이죠. 점점 감독님 스타일에 적응해가며 선수들끼리 호흡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축 선수의 이탈 등으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축구는 몇 명의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11명의 팀워크가 강팀을 만드는 스포츠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우승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및 팬들에게 한 마디.

정 : 열심히 뛰는 모습에서 나아가 이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팬분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할테니 지켜봐 주시고요, 문수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 힘찬 각오를 전하는 정재용 선수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중년의 변신은 무죄!

New Normal Middle Age

20년 전만 해도 '중년'이라 하면 성장이 멈추고,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여겨왔다. 그러나 2017년, 오늘의 중년은 변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자!

뉴노멀 중년(New Normal Middle Age)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란 뜻인 '뉴노멀'과 '중년'이 합해진 단어로 '젊은 세대가 즐기는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40~50대 남성을 말한다. 부양가족을 책임지느라 소비에 인색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중년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느냐'하는 삶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중년 남성들이 자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헬스클럽, 쇼핑, 피부미용 등 젊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비패턴을 보인다.



'뉴노멀 중년'의 모습은
어떨까?

매력적인 중년들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꼰대처럼 '우리 맨 말이야' 하며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 배 바지를 입는 패션 테러를 결코 범하지 않으며 양말과 샌들의 조합은 용납하지 않는다. 롤업 패션, 투블럭 헤어도 부담 없이 소화하며 합리적인 가격대의 마스크팩으로 피부 관리도 할 줄 안다. 헬스클럽, 수영장과 같이 자기계발을 위한 장소에서도 중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세대의 변화에 발맞춰 '뽀짝 아재 신드롬', '아재파탈(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아저씨)'이라는 신조어도 덩달아 탄생했다. 더 이상 중년이 희생의 아이콘, 고리타분한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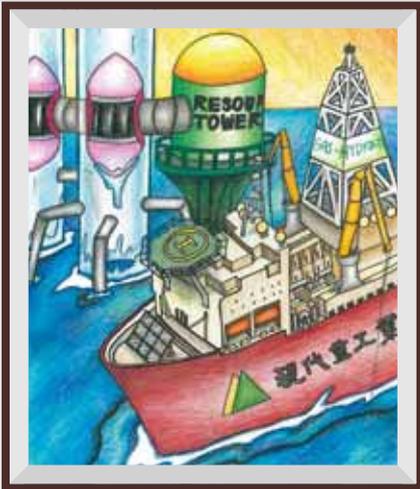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지금,
'뉴노멀 중년' 전성시대

2017년도에도 '젊은 어른'의 열풍은 지속될 예정이다. '아저씨'라 불리며 트렌드와는 한참 뒤떨어진 존재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년들. 세대와 상관 없이 아재개그가 유행하고, TV에서도 매력적인 40~50대 아저씨들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오빠라고 부르기에 다소 중후하고, 그렇다고 꼰대질 하는 남성이 아닌 오빠와 꼰대 사이의 어디쯤 존재하는 남성으로 요즘 뜨는 '아재들의 조건인 것이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든다. 나는 그냥 아저씨일까? 매력적인 아재일까? 후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췄다면 당신도 멋진 뉴노멀 중년이다.

순수하고 기발한 상상력 가득!

'사우 자녀 그림 공모전'에 제출된 그림 중 아쉽게 우수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녀들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사우 자녀들의 귀여운 상상력을 만나 보세요!



'친환경 기업으로'

서지원(시지중학교 3학년) | 서흥석 상무보(현대일렉트릭) 자녀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미래 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시추하는 선박과 우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미래 현대중공업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합니다.

'하늘을 나는 굴삭기'

김원일(무릉중학교 3학년) | 김윤학 차장(현대중공업 노사협력부) 자녀

거리를 오가는 커다란 건설장비들은 종종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굴삭기'가 시원시원하게 하늘을 날며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즉각 도착할테니깐요!



'해양 탐사 로봇'

윤정원(산북중학교 2학년) | 윤우성 부장(현대중공업 군산품질경영팀) 자녀

현대중공업그룹이 생산하는 로봇이 우리의 산업현장을 넘어, 바다 속으로까지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해저에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해상에 기지를 설치하고, 자원을 탐사하는 로봇도 개발해 해상탐사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을 맞아 떠난 특별한 여행

염재구 | 2016년 현대중공업 정년퇴직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고~
가는 청춘도 잡을 수가 없고~”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머리를 스친다.
1980년 처음 현대중공업에 입사할 때는 재형저축 1천만원만 타면 고향을 간다고 했건만, 이렇게 36년이란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정년을 앞두고 가족들과 정년휴가를 가게 됐다.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뜻 깊은 여행을 하게 되어 내 자신에게 고맙고, 내 직장 현대중공업에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해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 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선뜻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해외여행이라는 큰 선물을 해준 멋진 아들과 예쁜 며느리에게도 참으로 고맙다.
그렇게 떠난 정년휴가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소개할까 싶다.
첫째 날,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늦은 밤인데도 공항대합실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다.
괌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륙시간이 30분 정도 지연됐지만 여행을 간다는 즐거움 때문인지 짜증도 나지 않고 마냥 즐겁기만 했다. 부산에서 괌까지는 4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렇게 처음 밟아보는 땅, 괌에 도착했다.
둘째 날,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반갑게 맞이해 줬다. 가이드는 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줬다.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이 나고, 인사는 '하파데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사진을 찍을 때는 손가락을 V자로 하는 대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세워서 찍는단다.

3일 동안 투숙할 베로나호텔에 짐을 풀고 4시간 정도 잠을 청한 후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했다. 우리는 하루만 단체관광을 하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자유관광을 하기로 했다.
첫 관광코스는 슬픈 사랑의 전설이 담겨 있는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이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스페인 장교와 차모르여인이 서로의 머리카락을 묶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애절한 사랑을 상징하는 곳인 만큼 사랑을 맹세하는 수많은 자물쇠와 맹세들이 울긋불긋한 사랑마크에 적혀 있었다.
다음 관광코스는 아가나대성당이었다. 1699년에 건축된 이곳은 괌에서 제일 큰 성당이라고 했다. 하얀 벽에 스테인드글라스가 곳곳에 장식되어 있어 우아하게 느껴졌다.
성당 바로 옆에는 스페인광장이 있었는데 괌에 두둔하고 있는 미 해군과 공군들의 행사가 있을 시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셋째 날, 우리 가족끼리만 즐기는 자유여행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후에는 크루즈를 예약해 놓고 오전에는 가족끼리 호텔 앞에 있는 투몬비치에 가기로 했다.
전날은 날씨가 잔뜩 흐려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는데, 이날은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펼쳐졌다. 투몬비치는 숙소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백사장이 2킬로 정도 됐다.
태평양의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기가 맑아서인지 바닷물이 새파랗고 깨끗했다. 물도 깊지 않고 따뜻해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오후에는 단체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돌고래도 보고, 바다 속도 보고, 낚시도 할 수 있는 드림크루즈라는 관광을 했다.

운이 없었는지 돌고래는 보지 못했지만, 배를 바다 가운데 띄워 놓고 바다 속 풍경을 구경하는 스노클링은 환상적이었다.

바다 속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고기가 많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100여종류의 고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신기했다.

한국에서는 물에 들어가면 고기들이 도망가기 바쁘는데, 여기 태평양 바다에서는 사람한테 고기들이 모여들고 스킨십까지 하니 놀라웠다.

크루즈관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먹는 즐거움이였다. 시원한 캔맥주와 싱싱한 참치회를 태평양 바다 선상에서 먹는 맛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곁에는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여서 더 행복했다.

이렇게 배 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샌드캐슬매직쇼를 관람했다. 샌드캐슬매직쇼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서커스였다. 미녀들이 전통춤을 추고, 마술사들이 나와 사람을 공중에 띄우고, 중국 기예단들이 천정에서 내려와 밧줄을 잡고 날아다니는 묘기들을 보니 신기했다.

넷째 날, 마지막 관광을 하는 날이다.

이날은 렌터카를 빌리기로 했다. 하루 사용료가 10만원 정도여서 가족들과 같이 다니기 좋았다.

먼저 '피쉬아이마린파크'라는 곳을 가보기로 했다. 피쉬아이는 바다 가운데에 위치한 등대 같이 생긴 건물이었다. 입구와 연결된 다리를 10분정도 걸어가자 건물에 도착했다.

건물 안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어, 계단을 따라 9



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군데군데 나 있는 창으로 바다 속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코스인 언더워터월드로 이동했다. 이곳은 터널식 수족관으로 오후 2시가 되면 사육사들이 잠수복을 입고 상어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 점심을 먹고 시간에 맞춰 구경을 하러 갔다.

관광의 마지막은 역시 쇼핑이다. 우리는 프리미엄 아웃렛으로갔다.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기 위한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다.

괌은 열대지방이라 여름 옷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옷을 전부 팔고 있었고, 디자인이나 가격도 괜찮았다.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여행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치킨, 스테이크, 캔맥주를 사서 숙소에서 뒷풀이를 했다.

사실 여행하기 전에는 괌이라는 나라를 그냥 휴양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가족들과 함께 한 여행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였다.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새삼 가족과 회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마지막으로 36년 동안 내조한다고 애쓰 아내 정이준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초짜 아버지의 육아 일기

차성진 대리 | 현대미포조선 의장부

2016년 3월 21일, 근무 중이던 내게 “오늘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와이프의 연락이 왔다.

초음파 심장박동 소리와 흐릿한 음영의 영상만으로도 10개월 간 나와 와이프에게 큰 행복을 줬던 우리 신선이(태명, ‘신이 주신 선물’, ‘신선하다’는 뜻)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기대감에 나는 서둘러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나는 친구가 알려준 몇 가지 금기사항들을 사진에 숙지하고, 와이프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출산후가 3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옆을 지켰다. “이때 짝하면 평생 간다”는 말보다, 힘들어 하는 와이프와 신선의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우리 신선은 여자아이다. 아빠라면 누구나 한 번쯤 TV나 주변에서 예쁜 여자아이의 애교 있는 목소리와 앙증맞은 행동을 보고 ‘우리 딸도 이렇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난 초음파 사진의 얼굴 윤곽을 보며 배 속에서부터 연예인 김태희 모습과 같은 우리 딸을 상상해 왔다. 아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갓 나온 신선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보통 아기가 나오는 순간 아빠들은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난 무사히 나오는 아기의 모습에 잠시 안도감과 신비감이 들었을 뿐, 신선의의 꾸글꾸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에 간호사에게 신선이 외모가 어떤 편인지 진지하게 물어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성애에 뒤지지 않는 부성애는 금방 타올랐고, 조리원에 들어가서부터 신선의의 눈, 코, 입 모두 김태희보다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출산 직후 부모님께서 아이 이름을 ‘민정’이라고

지어주셨다.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아기를 집에 데려온 뒤, 장모님이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2주 정도 집에 함께 계셨다.

난 민정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퇴근 후 아기 목욕과 민정이 옆 잠자리는 장모님께 양보할 수 없었다.

혼자서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은 무게는 가볍지만 연약한 몸 때문에 조심하느라 은근히 힘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신생아 때는 2~3시간에 한 번 꼴로 모유와 분유를 먹이는데, 문제는 성능 좋은 알람 시계처럼 시간에 맞춰 아기도 우는 것이었다.

나는 의욕이 앞서 하루 평균 3~4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다. 당연히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됐다.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의욕은 급속히 저하되었다.

나는 회사에서는 와이프가 보내는 민정이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랬고, 집에서는 민정을 직접 안고 놀며 아빠로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루로 나와 따로 자면서도, 잠자리가 예민한 나는 새벽녘 들려오는 민정이 울음소리에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그리고 회사 핑계를 대며 점점 육아와 살림 모두 와이프가 도맡아 나가도록 유도했다.

‘와이프는 민정이 잘 때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은 와이프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사라지게 했다. 심지어 혼자만의 자유 시간까지 요구하는 이기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그 당시 난 와이프가 저녁 준비, 설거지, 목욕하는 순간만 민정이를 돌보고, 그 외 시간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모습만 민정이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민정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아기가 있는 작은 처형 집으로 와이프와 민정이를 보내면서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다.

한 번은 작은 처형 식구들과 와이프, 민정이가 함께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민정이를 오랜만에 안아보려는 순간, 민정이가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겁을 먹고 울며 동서 형님께 “아빠, 아빠”하며 안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바닥에서 똑같은 자세를 하고 TV를 보는 민정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기는 아빠, 엄마의 행동과 목소리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한다고 한다.

이기적인 아빠는 잊어버리고 과감히 다른 아빠를 찾는 민정이의 돌발 행동과 아빠의 잘못된 자세를 그대로 따라 하며 경고를 주는 민정이에게 두 손을 들고 그동안 나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서서히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인류처럼 민정이라도 뒤집고, 배밀이하고, 기어가고, 서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우리 공주는 신생아 때와는 다르게 피부도 하얘지고, 나름 주변에서 귀엽다는 소리를 듣는 제법 예쁜 아기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회사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며 민정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민정이는 이제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크고, 자주 부르는 든든한 아빠편이 되고 있다.

민정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몸무게도 늘어나면서 여러모로 육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예쁜 공주의 아빠이자 세 식구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진짜 아빠’가 되어가고 있다.

세상 모든 아빠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날릴 시간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부모로서 희생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나서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낌없이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부

모님이 그러하셨듯이 나 또한 우리 민정이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육아기간은 내가 민정이를 키운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성장시킨 시간이었던 것 같다. 1년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이제 곧 우리 민정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바쁜 육아를 핑계로 그 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신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짓궂지만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려준 친구들, 많은 시간 함께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응원을 보내준 회사 선배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했을 내 반쪽 와이프에게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우리 민정이가 곧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빠가 될 것을 약속하며, 고마운 분들이 베풀어주신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

초짜 아빠의 육아 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인형 뽑기의 비밀

박찬세 |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최근, 변화가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한 블록을 갈 때마다 길 양쪽으로 사격장, 인형 뽑기 가게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인형 뽑기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나 싶다.

실제로 주말 오후 삼산 현대백화점 나팔꽃 사거리와 롯데백화점 후문 변화가를 거닐어 보니, 100미터마다 하나씩 생겨나 있는 인형 뽑기 가게를 볼 수 있었다.

과거에도 물론 인형 뽑기 기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지금 인형 뽑기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은 이유가 '포켓몬 고'의 인기에 힘입은 포켓몬스터 인형의 기하급수적인 판매증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 판에 천원. 이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인터넷이나 일반 가게에서 인형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하는 것일 거다.

또한, 친구가 예쁜 캐릭터의 인형을 뽑았다고 자랑하는 SNS 글에 혹해 자신도 인형 뽑기 가게에 가서 인형을 뽑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형 뽑기는 중고시장도 잘 형성돼 있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물량이 모이면 일반인들끼리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인형 뽑기 가게 사장에게 되팔 수도 있다.

이밖에도 예쁜 인형을 얻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

인형 뽑기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인형 뽑기를 처음할 때는 잡힐 거 같은 인형에 가서 무작정 집계를 집었다. 결국 돈을 얼마 이상 쓰고 나서야 한 두 개씩 뽑

았지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나서는 기계마다 특성이 다르고 위치에 따라 뽑히는 것과 안 뽑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노하우를 적어보려 한다. 인형 뽑기는 아래와 같이 해야 뽑기 쉽다.

첫 번째, 무조건 탑을 쌓아야 한다. 여기서 탑이란 입구 높이까지 인형을 쌓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형은 제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입구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두 번째, 탑을 쌓았다면, 인형이 가장 잘 오므려지는 부위를 잘 조준해 집계를 내린다. 한 번에 입구까지 오면 좋겠지만, 탑에 떨어지면 뒤집기, 끌기, 회오리치기, 밀기 등의 스킬로 입구 밖으로 떨어뜨려 획득하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 위의 두 단계를 어느 정도 익혔다면, 기계별 특성을 익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계들이 입구 근처에 오면 무조건 집계의 힘이 빠지도록 조작해 두었다. 때문에 입구 앞에 있는 것은 탑이 없다면 건들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입구 위치에서 대각선 방향의 가운데에 있는 인형을 테스트로 잡아 본다. 이것이 기계가 잘 잡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잘 안 잡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계의 특성을 판단하고, 전략을 구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형 뽑기는 평일 저녁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인형이 잘 뽑히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도 나도 인형 뽑기 가게를 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필요하다면 친구와 가족과 인형 뽑기를 즐기러 가보면 어떨까?



무료한 주말? '이 영화 보세요!'



박성환 | 호텔현대 목포

무기력하고 지루한 시간, 어김없이 영화 한편이 생각난다. 로맨스, 드라마, 스릴러, 코미디, 액션 등 다양한 장르로 인해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결국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택했다.

소설가 리차일드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잭 리처'의 열여덟 번째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2013년도 개봉한<잭 리처>의 두 번째 시리즈 <잭 리처 : 네버 고 백>이다. 워낙 전작이 화려해서인지 두 번째 시리즈도 단번에 눈길을 끌었다.

이 영화는 군 내부의 음모와 비리에 휘말리게 된 주인공이 사건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시작된다.

'비상한 두뇌, 타고난 직감, 강인한 체력, 정의감'까지는 기존 히어로와 흡사하다.

하지만 전직 미 헌병대 소령 출신 잭 리처는 길 위의 남자다. 가족·직업·명예·돈을 모두 버린 채 신분증과 지갑, 칫솔 하나만을 소유한 채 이곳저곳을 떠돈다.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그는 특별한 장비나 지원, 초능력 없이 홀로 사건을 추적한다.

청부살인업자와 대결 시 안타까울 정도로 두들겨 맞기까지 한다. 대결 후 절뚝거리며, 호텔방에서 끄끙거리는 모습에선 완벽한 영웅이 아닌, 고단한 중년 남자에게서 풍기는 인간미가 느껴졌다.

빠른 판단력과 비상한 두뇌에 깔끔한 액션이 강렬한 잭 리처와 지칠 줄 모르지만 인정사정없이 끈질기게 쫓아오는 악당 패거리들의 집요함도 만



만치 않게 그려졌다.

자동차액션에서 총격전과 육탄전까지 화력도 강하면서 대부분의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한 톰 크루즈의 믿음직스런 액션파워가 영화의 흥미를 더해준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료함은 사라졌지만 영화도중에 느꼈던 긴장감은 쉬이 떨쳐내지 못하였다. 다가오는 주말, 무료함을 확 날려버리고 싶다면 자신 있게 <잭 리처 네버 고 백>를 추천한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기엔 너무

거대한 스펙터클의 영화일 수도 있지만, 영화의 긴박감과 손에 땀을 쥐게 할 스릴감, 묵직한 감동은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한 떨기 지는 꽃

박혜원 | 현대삼호중공업 도장부

내 걷는 걸음에 진흙탕이 있노라면,
아무 고민없이 나를 들어올려 걷던 그대였다.
그대의 발꿈 진흙으로 물드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걸음을 걷다, 돌부리에 쉽게 넘어지던 나였다.
작은 상처에도 눈물부터 나던 내게 그대는 말했다.
넘어질 줄도 알아야, 일어설 줄도 아는 법이라고.

걸음이 익숙해지자, 더 이상 그대의 손을 잡지 않게 되었다.
홀로 일어설 줄도, 넘어져도 더 이상 눈물부터 내보이지 않았다.
그대의 무릎에 닿던 내 키는 어느새 그대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대의 발걸음 하나하나 맞춰나카던 내가, 어느새 그대를 앞장서었다.
혹여나 내가 또 넘어질까, 그대는 내 뒤에 걸겠다고 한다.
그대를 믿고, 앞만보고 걸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 걸음 하나에 꽃잎이 맞춰 떨어진다 말한다.
그대가 한 떨기 지는 꽃이라, 내 걸음에 꽃잎을 내려 놓는다고 했다.
그렇게 오직 나를 위해 일생을 다해간다 하였다.

누가 그대에게 한 떨기 지는 꽃이라고 했던가
그대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다.
그대는 봄이오라, 나를 피워냈다.
그대는 나의 꽃이오, 나의 부모이다.

봄의 길목에서



현대중공업 해양시운전부 | 하명호

아지랑이 저 멀리서 손 짓을 해대니
나른한 봄의 정취가 이만큼 오고 있네

화사한 꽃 향기 길목을 돌아오니
늙은 촌부 막걸리 탁배기 한 잔에
목젖을 달군다

지나간 세월에 울분과 함께 인생을 마신다
가슴에 찌르르 넘어가는 한 잔 술은
회환과 함께 하는 울분의 술이리라!

외로움과 그리움이 희석되어 있는
너와 나의 인생에 대한 파노라마가 되어간다

욕망과 함께 하는 걱정을 뒤로하고
외로움과 그리움이 사무치니
한 잔의 술은 원기소가 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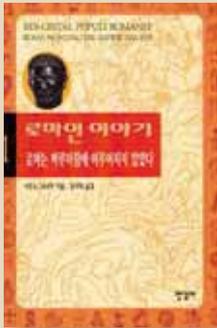
홀로된 촌로
숨이 가빠진다
막걸리 흘러 오른손 소매로 스윽 닦아 내린다
푸르죽한 별 바랜 쪼그러진
고추 한 잎 묶은 된장에 안주하여 베어 무니
짜릿하니 내장을 스쳐지나갈 터

아지랑이 집 밖을 아른거리고
저 하늘 뭉게구름 어깨동무 마중을 하니
탄식의 술이 아니고
저 마치서 손짓하는 세월에 헤어지지 못하니

늘어가는 인생의
회한의 한 잔 술이려니
늙은 중년의 촌부는 지나가는 세월을
뒤로한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1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著)

로마의 시작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소설 형태로 딱딱하지 않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탈리아에서 30년이 넘는 독학으로 로마사를 연구한 시오노 나나미의 대표 저서입니다. 로마의 생활양식 및 정치 형태를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해 이해하기 쉽고,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로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동양식 및 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 등 서양인들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을 관통하는 고대 역사의 흥망 성쇠를 통해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홍성희 차장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2



정해진 미래
(조영태)

이 책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구학적 관점'이라는 기준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학자로 손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미래까지의 전체적인 사회변화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자는 인구학의 관점을 통해 미래의 교육, 노동시장, 부동산 등을 집중적으로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인구변화가 이끌어낼 미래의 사회상을 예측, 해석해 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박승현 대리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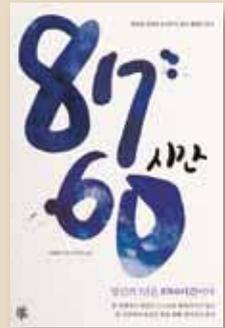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
(민이연)

어제와 다를 것 없었던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을 앞두고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늘 비슷한 고민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철학은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좋은 해결책입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등 이름부터 만만치 않게 다가오는 철학가들이지만, 이들 사상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늦은 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을 떨쳐내게 해줄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밤마다 힘든 사우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 미
현대삼호중공업 사업기획부

4



8760시간
(아이리 著)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각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8760시간은 1년,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를 얼마나 작게 쪼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저자는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의 흐름을 자각하게 되는 단위가 30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시간 관리로 우리 사우들 모두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승중 부장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경영기획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lgusdlf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5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하기시노 게이오)

이 책은 30여년간 비어있던 교외의 한 잡화점에 삼인조 줌도독이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는 줌도독 삼인조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결점투성이 젊은이들입니다.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물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빨라 지루하지 않고 스토리 구조도 개연성이 있어 재미와 감동을 함께 찾는 사우들에게 적격인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완규 대리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6



너를 사랑했던 시간 (이근대)

마음이 울적해지는 날, 까닭 없이 눈물이 핑 도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땐 주변 사람보다 낯선 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에 구름 한 점 없이 사는 사람 없듯이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 힘겨워 하지 말라며 독자들을 다독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우들에게 이 책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김정원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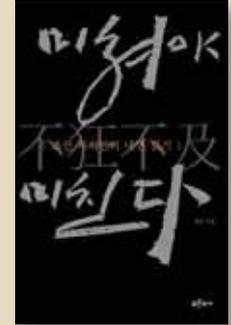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김민정 著)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소재로 써 내려간 시들을 통해 삶과 사랑의 의미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 나갑니다. 애써 무겁거나 어두운 언어를 사용해 적은 시가 한 편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읽혀지지만, 시어들 사이로 생각할 거리가 많아 보면 볼수록 더욱 재미있습니다. 특유의 재치 있는 말장난과 눈치보지 않고 쏟아내는 음담(淫談)들이 방심했던 마음에 흠 찌르고 들어옵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 친구나 연인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좋은 시집입니다.

권윤욱
현대중공업 배전반연구개발실

8



미쳐야 미친다 (정민)

허균, 권필,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 김득신, 노균, 김영 등 18세기 조선의 지식인 이 책은 이들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열정과 광기를 담은 글입니다. 책에 미친 이덕무, 바다 생물에 미친 정약전, 자신이 세운 뜻을 위해 송곳으로 귀를 찌른 사람, 심지어 굶어 죽은 천재까지. 이들은 당대의 마이너였으나 그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열정과 광기로 말미암아 일가(一家)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했던, 미치지 않고선 이룰 수 없었던 그들의 열정적 생애는 목표 없이 나태해져 가는 일상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 생각합니다.

손현곤 대리
현대미포조선 도장1부



이번 달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김 대리가 입사동기 정 대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은?

사례

김 대리는 입사동기인 정 대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간간하게 굴고 싶지 않아 별도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 대리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돈을 빌려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 대리는 정 대리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며 흥청망청 쓰는 것이 못마땅해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정 대리는 매번 애교로 때우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리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 ☎02-746-4667

민사소송을 시작해 보자!

민사소송은 떼인 돈을 받는데 국가의 강제력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은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별도의 집행문을 받은 다음에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서 현금화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강제집행)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단순한 금전지급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소액사건심판으로 배당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출석할 날을 통지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1회 재판으로 종결하므로, 모든 증거를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판사가 알아서 당사자를 신문하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알려주기도 하며, 간단한 사건의 경우 그 날 바로 선고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액사건심판이 진행되는 법정 밖에는 마치 시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서서 큰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해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

채무자가 상소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알고 있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계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례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지급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자동차 동산경매를 진행하여 채무자에게 본 때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그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하고, 자동차 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면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금전거래' 신중해야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시작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과 이자 및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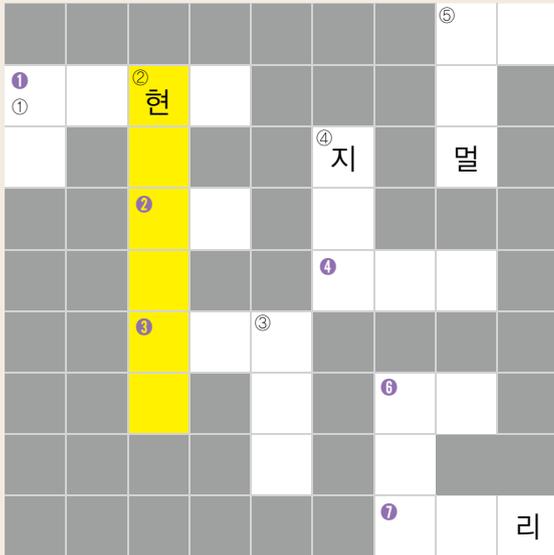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정지원 책임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현重 **넌비자작부부** 2 by K신득



눈썰미 퀴즈



가로 열쇠

- ①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 현대중공업은 최근 업계 최초로 0000안전체험관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 (p.24 참조)
- ② 날마다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
- ③ 지난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45대 대통령 이름. 도널드 000.
- ④ 기업의 경영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업분리로 7조3천억원이었던 000 규모를 3조9천억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4 참조)
- ⑤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는 방송 프로그램.
- ⑥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 한마음회관에는 최근 00 강좌가 개설돼 인기를 끌고 있음. (p.45 참조)
- ⑦ 일의 끝맺음. 어떤 일이든 000를 잘해야 한다.

세로 열쇠

- ①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이 사보의 이름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00.
- ② 4월 1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 본부의 새로운 이름. 000000&에너지시스템.
- ③ 유럽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에펠탑, 개선문 베르사유 궁전 등이 유명하다. 수도는 파리.
- ④ 차의 앞부분에 두 개의 길쭉한 철판이 나와 있어 짐을 싣고 위 아래로 움직여 짐을 나르는 차로, 현대건설기계의 주요 생산품이기도 하다.
- ⑤ 젊은 세대가 즐기는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40~50대 남성을 칭하는 말. 000 중년 (p.68 참조)
- ⑥ 텔레비전 따위에서 방송되는 극

퀴즈 당첨자

|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 | | |
|---------------------------|---------------------|
|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
| 김수연 현대중공업 설비기획부 김준욱 부장 자녀 | 주선혜 현대중공업 엔지니어운영부 |
| 호텔현대울산 뷔페권(2인) | 홍성희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
| 박원성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 김승중 현대중공업 엔지니어경영기획부 |
|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 권윤옥 현대중공업 배전반연구개발실 |
| 백충목 현대중공업 조선원가회계부 | 황재영 현대중공업 대조립2부 |
| 채수관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 정영옥 현대중공업 의장5부 |
|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 이승준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
| 김후규 현대중공업 가공조립부 | 최원호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
| 안만희 현대중공업 건설장비가공부 |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
| 울산현대축구단 사인볼(1개) | 이민겸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3부 |
| 박치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2부 | 이재희 (주)성단 |
| 이강철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 이동규 현대미포조선 선행의장부 |
| 류종열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 OUTBACK 식사권 |
| 황슬아 현대미포조선 선행의장부 | 윤석주 현대중공업 의장5부 |
| 박양수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 김성용 현대중공업 도장2부 |
| | 백승언 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

| 현대삼호중공업 |

- | | |
|------------------|--------------------|
| 호텔현대목포 뷔페권(2인) | 호텔현대목포 케이크 교환권(1매) |
| 박문용 건조2부 | 김병환 가공부 |
| 사내 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 이영록 공사지원부 |
| 이지안 건조1부 | 신안 천일염 |
| 오광국 (주)금도 | 김경호 건조2부 |
| 전지연 인력개발부 | 김민규 선실생산부 |
| 강정묵 의장 1부 | |

퀴즈 응모 방식이 변경됩니다!

세로 2번의 정답을 4월 20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 붓꽃 (Iris, 1890)

이름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37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고흐가 1888년부터 몰두한 피사체 '붓꽃(iris)'. 그는 이 강렬한 푸른색의 꽃이 불안한 영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캔버스 위에 표현했습니다.

붓꽃의 영문명은 '아이리스(iris)로 무지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신화 속 최고의 신인 주피터(Jupiter)의 아내 주노(Juno)의 시녀였던 아이리스는 예의 바르고 충성심이 남달라 주노의 총애를 받았는데, 주피터의 끈질긴 구애에도 아이리스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무지개로 변해 신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붓꽃의 꽃말은 비 온 뒤 떠오르는 반가운 무지개와 같이 '기쁜 소식'입니다. 고독과 퇴폐한 생활로 심신이 지치고 불안했던 고흐는 다양한 모습의 붓꽃을 그리며 행복을 가져다 줄 반가운 소식을 기다린 게 아닐까요?

겨울을 밀어내는 따스한 햇살이 반가운 4월, 여러분에게도 무지개처럼 오색 빛의 찬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이 희망찬 미래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기업 가치와 고객 신뢰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독립법인 4개사

- | 현대중공업
- | 현대로보틱스
- | 현대건설기계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중공업그룹